



인권		B11~2
영구인	분류기호	
	B11	2

문국진씨 사건

46

관리번호	
생산연도	
보존기간	
분류번호	
제 목	
부서명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B10.1	8

(4)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 제1호

첫 재판 열려

지난 11월 18일(목) 오전 10시 문국진씨의 민사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서울민사지법 559호 법정에서 약 20명의 방청객의 참여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담당판사는 민사13부 조홍은, 김수천, 성기호 판사입니다.

우리측 주심 변호사인 백승헌 변호사가 소송 자료를 제출하자 이에 대해서 정부측 소송 대행자인 청량리 경찰서 소속 경정 안승환, 경감 조수형, 경사 박동열 등 3인의 명의로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들 중 경사 박동열은 문국진씨 수배 때부터 청량리 경찰서에 있던 경찰로 부모님이 얼굴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직접적으로 문국진씨의 수사를 담당한 김낙현 형사는 지난 8월에 병으로 사망하였고, 소송 대리인 2인은 청량리 경찰서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들이 제출한 답변서에는 "조사과정에서 일체의 가혹행위가 없었고, 수시로 부모 등 보호자의 면회가 가능했으며, 조사중 발작으로 병원 진료를 받게 했으며, 자수 이전 정신분열증을 일으켰다"는 것으로 원고(문국진씨측)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으며, 증거 자료로 당시 청량리 경찰서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부모 진정서, 원고 자수 검거보고서, 원고에 대한 정신감정서 이며, 이들 경찰측 자료를 볼 수 있게 된 점은 오히려 우리측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 하나 분명히 밝혀진 것은 문국진씨가 자수한 날이 부모님의 기억과는 다른 86년 10월 27일로 건국대 사건 직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원고측에서는 정신감정서를 작성해준 배기영 박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받아들여졌고, 원고 신체감정 신청도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졌습니다. 여타의 증인 신청은 답변서 등 자료 검토 후 추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아직 미정이며, 신체감정은 12월 14일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재판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 부모, 형제, 친척, 최의팔 부대표님을 비롯해서 당시 사건 관련자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국회 청원은 변호사 30인, 의사 13인, 재야인사 30인, 기독교 250인, 천주교 24인, 불교 15인, 여성단체 90인, 일반시민 473, 연대생 150인 등 12월 1일 현재 1,134명의 서명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지를 예정입니다.

♣인권주간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고문후유증 사례보고회는 준비의 부족과 일정상의 문제로 오는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인 고 박종철 열사의 추도식과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사가 확정되면 이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11월에 가지려던 문화공연은 취소되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는 12월 21일(화) 오후 7시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조출한 송년의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문국진씨의 가족과 대표, 실무자를 비롯한 회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문국진씨의 가족을 위로하고 회원들과 우리 모임의 사업을 의논하게 될 작지만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금 문제♣
신체감정을 받게 되면 최소 400만원의 돈이 필요하게 된다고 합니다. 회원은 회비를 내주시고 동봉하는 회원 가입서를 적극적으로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모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합시다.

<은행구좌>
주택은행 420802-92-1041167 문국진 국민은행 027-21-0568-670 문국진
상업은행 126-08-171760 문국진 조흥은행 371-06-147478 문국진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 1호

1993년12월10일/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전화:796-8364, 5팩스:796-8366

<소식지를 발간하며>
문국진과 그의 가족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모임으로
박정기(대표/박종철열사 부친)

다시 겨울입니다. 저에게 겨울은 어느 계절보다 아픈 계절임에 틀림없습니다. 7년 전 겨울 강가에 자식의 뼈가루를 뿌려야 했던 아픈 기억을 나는 이 겨울에 갖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7년의 세월이 지났고, 그러나, 나의 자식이 그렇게 비명횡사를 하고, 많은 이들이 고문 철폐를 외치며 싸웠지만, 이 나라에서는 아직도 고문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정권에서도 심지어는 문민정부라 하는 현 정권에서도 고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문은 저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유력한 한 수단임에 틀림없습니다. 나는 이 겨울 정신병원에서 가족과 헤어져 심지어는 다섯살 박이 딸과 헤어져 병마와 싸우는 문국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그의 아내와, 가끔은 보고 싶은 아버지 얼굴을 그리며 울곤 할 그의 딸을 생각합니다. 한때의 고문으로 그토록 영민하고 가능성 있는 한 젊은이가 철저하게 파괴되어가도록 나는 무엇을 했고,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또 최영미 학생과 같이 안기부에 끌려가 13년 동안 정신병에 시달리는 그 한스런 인생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김복영이란 학생은 이제 기억마저 상실되가는 현실에 처해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과거의 군사정권에 의해 고문을 당한 일들에 대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 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말로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고 떠들면서도 이번 유엔 총회도 그냥 지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겨울에 비록 많은 일들을 할 수는 없지만, 고문이 갖는 심각성, 더욱이 고문후유증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일들을 계획해서 실질적으로 고문이 추방되고 더이상 고문후유증으로 고통 받는 이들이 없도록 우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가를 계획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문국진과 그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이 용기를 얻어 당사자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에 우리의 회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함께 하고, 이 자그마한 소식지가 회원과 회원, 모임과 모임을 연결하고 점차 대중적으로 고문 문제를 홍보하고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출발은 늘 미약하지만, 함께 가노라면 우리는 기필코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이룰 것입니다. 연말연시 따뜻하게 보내시고, 늘 문국진과 그 가족에 대한 생각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문국진, 지금은

문국진씨의 현재 상태는 많이 좋아져 있습니다. 감정상태도 많이 안정되었고 치료도 의사 선생님의 정성어린 간호로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석 직후 상태가 더 악화되어 많은 걱정들을 했지만, 이제는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면회를 한 문국진씨 부인 연옥씨가 전했습니다.

현재 치료를 위해 Clozapin(크로자핀)이라는 새로운 약을 바꾸어서 투약하고 있는데, 이 약은 한국에서는 올해부터 쓰기 시작한 약으로 미국에서는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 백혈구 감소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정기적으로 피검사를 해가며 그 적응과정을 지켜봐야 하는데 투약 후 8주간은 그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두달간은 현재의 고대 부속 구로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계속해야 합니다.

현재는 6인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가끔 고생하는 부인 때문에 눈물을 짓고, 밖에 있는 친구들에게 잘 있다고 전화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누구누구가 보고 싶다고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달라는 부탁을 하곤 한다고 합니다.

12월 10일 현재 신체감정일이 12월 14일로 잡혀졌고, 병원은 연대 세브란스 병원이며 담당의사는 남극기씨로 법원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병원을 옮길 경우 치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금 있는 고대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사와 변호사님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나갈 소식지에서 보다 상세하게 문국진씨의 근황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국진씨와 그의 가족에게 편지를!

연말연시가 다가오고 거리는 벌써 연말 분위기에 젖어 있습니다. 연말 결산이다. 송년회다 해서 바쁘게 돌아가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연말연시가 더욱 우울한 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생활에만 쫓겨 자칫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생각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연하장이나 크리스마스 카드를 쓸 때 꼭 잊지 말고 문국진씨와 그 가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한장의 편지나 엽서, 카드를 보내시면 어떨겠습니까?

마음이 담긴 한장의 엽서가 문국진씨와 그 가족들에게 무한한 힘을 주리라 믿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가족 주소 ❁

(우편번호 130-091) 서울시 등대문구 휘경1동 140-38 20층 3반 윤연옥

❁ 인권운동 사랑방 주소 ❁

(우편번호 120-142)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

<고문 후유증의 사례(1)- 최영미씨의 경우>

안기부에서의 11시간, 12년간의 고문후유증

12년째 고문에 의한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한 젊은이가 있다. 지난 10월 16일 한겨레신문과 10월 15일자 노동자신문에 실림으로써 세상에 알려진 최영미씨는 81년 6월 10일 인천대헌공전 1학년에 재학중 안기부 인천본실(인하공사) 지하 취조실에 끌려가 11시간 동안의 조사를 받고 나왔다.

당시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서 가공할 공포정치를 휘두르던 때였고, 가장 많은 간첩 조작사건이 만들어졌던 시기이기도 했다. 최영미씨의 경우는 황해도 출신인 그의 부모님이 일본에 살던 딸의 박람회 초청으로 20일간의 예정으로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부모님이 일본으로 떠난 다음 날 인천본실 소속의 수사관 3인에 의해 연행이 되었고, 11시간 동안 "부모가 왜 일본에 갔느냐"며 최씨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보여주면서 다그쳤다고 한다.

그날 오후 7시경 연락이 와서 그의 오빠가 데리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오빠의 질문에 겁에 질려 창백한 상태로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한다.

그런 일이 있은 후 1달이 지나고부터 최영미씨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누가 들어온다며 문을 잠그놓고 꾸구리고 앉아 있고, 2층에서 넥타이로 목을 매달고 동맥을 끊고 수차례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였다. 상태가 나빠질 때마다 최씨는 "살아서 뭘 하느냐 죽고 싶다. 그놈들이 '너 여기서 있던 일 발설하면 너희 식구들 다 몰살시키겠다'고 했다면서 그 말이 생각나서 '우리 식구들 모두 죽일 것 같다'고 말하곤 했다 한다. 최씨가 하도 괴로와하기에 한번은 어머니를 최양을 데리고 안기부에 갔다는 일도 있었고, 검문하는 직인도 최씨를 알아보았다고 한다. 그런 후 82년 2월에 첫 발작을 일으켜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악을 쓰고 부수고, 집을 뛰쳐나가 안기부 앞에서 옷 벗고 앉아 있는 것을 어떤 목사님이 데려왔는데, 당시 최씨는 "3명 중 두 사람은 나이가 먹었고 유독 한 사람이 더 심하게 했다"며 악을 썼다고 한다.

그런 후 1년에도 몇 차례씩 발작을 일으켜 20일에서 3개월씩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 더 이상 치료비를 비롯해 가족들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된 85년에 최양의 아버지 이름으로 청와대에 탄원서를 냈고, 그런 후 안기부 직원이 와서 좋은 회신이 올 것이라고만 말을 했고, 그후 아무런 조치도 없자 그의 아버지는 핏병으로 86년 6월에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후 87년 7월 다시 어머니 이름으로 청와대에 탄원을 하였고, 그 일로 안기부 직원이 찾아와 보상금을 달라는 요구에 대해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평생토록 최영미씨의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하였고 진정과 탄원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자 다음날 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그리고 안기부 직원은 주안에서 20년 동안 약국하던 사람이 간첩이었다고 말하며, 최양 부모가 일본에 갔길래 조사해 봤다고 말했는데 편지 내용에 대해서는 대답을 회피하였다. 그 이후 92년 10월말까지 관비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5년 동안 2번밖에 외출을 하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후 92년 최영미씨를 단독 세대주로 의보 처리되던 것이 문제가 되어 의보증이 회수되었고, 치료비가 끊긴 상태가 되었다. 안기부는 그후 관비 처리해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었으며 오로지 그녀의 치료는 가족의 부담으로만 남게 되었다.

최영미씨는 현재 치료비도 없고 치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어서 거의 치료를 포기한 상태이고, 최영미씨는 한글조차 제대로 기억할 수 없는 상태이며, 요즘도 종종 발작을 일으키고 있고, 유일한 소일거리는 라디오 음악방송에 엽서 보내는 일이고, 일주일에 한번 어머니와 함께 성당에 나가고 약타러 가는 일이 유일한 외출이다. 그의 어머니는 지난 5월에 치료만 해달라고 탄원을 냈고, 목요회의 도움으로 법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농성이라도 하고 싶다. 김영삼 대통령도 그렇게 군사정권에 의해 고생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 최소한 치료비라도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면서 안기부가 치료비를 대준 사실조차도 발뺌을 하는데 기가 막혀 하고 있다.

❖ “문국진과 함께 하는 93 송년의 밤” 행사 가져

모임은 지난해 12월 21일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박정기 대표, 최의팔, 최민화 부대표와 문국진씨의 가족과 2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조출하지만, 따뜻한 송년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는 그간 문국진씨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서로의 역할을 나누던 분들이 한 자리에 처음 모일 수 있었던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였는데, 변호를 맡아준 백승헌 변호사님과 그간 문국진씨의 치료를 맡았던 배기영 선생님, 한겨레신문 중화지국을 운영하는 심병호선생님,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김복영씨의 누님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문국진씨가 94년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곁에 돌아오고, 더 이상 고문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하자고 의지를 모았으며, 2시간 가량 진행된 송년모임은 촛불의식과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함께 합창하며 아쉽게 끝났습니다. 이날의 자리를 위해 해인이 이모께서 음식을 마련하느라 수고해 주셨습니다.

❖ 민주당 이기택 대표 면담하여 고문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청원 직전에 모임의 대표단과 윤연옥씨등이 민주당사 대표 최고위원실에서 이기택 대표와 면담을 갖고 민주당이 국회 차원에서 고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수림 민주당 인권위원장, 국회청원 대표 소개의원을 맡아준 임채정의원등이 배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강수림 인권위원장은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하고,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 인권위원회의 설치등의 내용을 갖는 고문방지법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보고하였고, 이기택 대표는 “헌 정권이 문민 정부라면 과거 정권 하에서 자행된 고문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 민자당의 실세이고, 김영삼 대통령의 측근중의 측근인 최형우 현 내무장관이 사상범에게는 고문 용인 망언이 담긴 인터뷰 기사가 월간 『말』지 94년 1월호에 실려 각계가 규탄에 나서고 있습니다. 모임을 비롯한 8개 인권단체는 연명으로 지난해 12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최형우 신임 내무장관의 공개사과, 인권보장을 위한 계획 마련, 이근안 검거,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조속히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인터뷰 기사는 말지 1월호를 참조 바람)

❖ 문국진씨의 처 윤연옥씨는 지난해 12월 27일 기독교방송 ‘시사자키-오늘과 내일’이란 프로에 출연하여 문국진씨에 대한 소개, 현재의 상황, 재판 진행과정등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양원 변호사와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된 이 프로는 기독교방송에서 연말 특집방송으로 구성한 것이었습니다.

❖ 고문후유증 사례 보고회가 오는 1월 14일 오후 6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4차 대표회의가 1월 11일 오전 11시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있습니다.

참여연대 인	자료
등록일	분류기
	자료
	B10-1 8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 2호

발행인: 박정기/발행일: 1994.1.1 / 용산구 한강로2가 404 기원빌딩 501호 / 전화: 796-8364 / 팩스: 796-8366

<새해를 맞으며>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인한가를 그들에게 보여줄 터

윤 연 옥(문국진씨 처)

지난 11월 13일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이 발족된 이후 이 모임과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장갑차에서는 최루탄이 난사되고 전경들은 젊은이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하게 어딘가를 가고 있는 중에 전경에게 잡혔고, 나는 애기엄마이고 어린 딸아이가 놀라기 때문에 빨리 가야한다고 말하자 전경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뿌연 최루탄 속을 뚫고 딸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자 어떤 흑인병사가 책꽂이에 꽂힌 두꺼운 철학사전 두권을 보고는 불은서적이니 이 책의 주인 즉 저의 남편을 잡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애가 타서 내가 다니는 출판사에서 보는 책이라고 어설픈 영어와 손짓을 하다가 꿈에서 깰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제는 거의 사라진 최루탄의 거리, 무자비하고 가차없는 연행 바로 이것이 얼마전까지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관통했던 그 생생한 현장이었습니다. 군사정권은 엄청난 물리력으로 우리들을 탄압했고, 재판이란 것은 우리를 구속시키기 위한 절차였을 뿐이었습니다. 창살없는 감옥에서 우리의 동지들은 고문기술자들에 의해 서서히 파괴되어갔습니다. 그들은 고문으로 인해 인간이 파괴될 수 있다는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국진,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를!

그의 고통스러웠던 10여 년의 세월을 생각하면 분노를 가눌 길 없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을 가라앉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날 군사정권이 저지른 그 죄악들에 대해 과연 문민정부가 어떻게 감싸안는가를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가끔씩 딸아이 해인이는 아빠가 보고싶다며 그 맑은 눈망울에 눈물을 글썽거립니다. 딸아이와 저만 있는 이 방이 어찌면 텅 비어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한 저는 좌절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강인한가를 우리를 탄압하고 고문했던 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곳곳하게 살아나갈 것입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문국진, 지금은

지난 해 11월 18일 첫 재판이 열린 뒤 12월 14일 법원으로부터 신촌 연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모임은 현재 문국진씨가 고대 구로병원에서 새로운 약을 투입하며 치료를 하는 중임을 감안하여 치료를 받던 고대병원에서 신체감정을 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 좋다는 판단을 내리고, 연대병원과 고대병원에 그 의사를 타진하였고, 또한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도 연대병원에서 고대병원으로 신체감정병원을 옮겨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가지의 사정으로 인해 고대병원에서 신체감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져 지난해 12월 28일 고대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입원을 시켜서 신체감정에 들어갔습니다. 신체감정은 1월 8일경에 마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문국진씨는 신체감정을 받는 동안 치료를 중단하고 정밀 신체감정을 받게 됩니다. 문국진씨는 병원에 입원한 이후 가장 좋은 상태였고, 고대병원에서 신촌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자신의 일이 시사저널에 실리고 재판이 진행중이라는 것을 어렵듯이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체감정을 받는 동안 청량리 경찰서에서 고문받았던 기억들이 많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국회청원 소식

모임은 지난 10월부터 추진해왔던 국회청원을 지난 12월 29일자로 완료했습니다. <‘고문 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등 고문 피해 대책 촉구 청원>이란 다소 긴 제목의 청원에는 변호사, 의사, 교수, 재야인사, 강사, 종교인, 학생, 시민등 총 1,284명의 서명을 받아 이루어졌고, 모임의 대표단의 이름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도 민주당의 이기택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77인, 민자당 강신욱 의원, 새한당의 한영수 의원등 79인이 서명해 주었으며, 대표 소개의원으로는 민주당의 임채정 의원이 맡아서 해 주었습니다.

국회 청원서에서 '1) 고문 후유증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 2) 고문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 대책을 세울 것. 3) 고문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 4) 고문의 근절과 고문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5)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급적 빨리 가입하고 이를 유보없이 비준하여 고문의 근절과 고문 후유증 치료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의지를 천명하도록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청원 자료는 별지로 함께 우송합니다)

<고문 후유증의 사례(2)-김복영씨의 경우>

고문 그 이후 기억도 사라지고...

김복영, 그는 외모가 깨끗한 젊은이로 지난 84년 연세대 정외과에 입학하였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하기 이를 데 없던 그는 대학에서 KUSA라는 씨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학생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는 유난히 체포를 많이 당한 전력을 갖고 있습니다. 85년에서 86년 사이 그는 시위 현장과 불심검문에 의해 총 8회나 경찰에 잡혀갔는데, 86년 4.19 시위 직후 미도파 백화점 앞에서 체포되어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 약 3개월간 구치소 생활을 경험하였습니다.

연행 당시에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였고, 경찰서와 구치소에서 각종 고문을 경험하였던 그는 그런 과정에서도 운동에 대한 신념을 더욱 굳히고, 자신의 사상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한편으로 강박관념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석방 직후부터 그에게는 뭔가 두려움에 쫓기는 듯한 이상한 중세가 나타났고, 한번은 친구 집에 가 있던 중에 밤 늦게야 집에 들어와서는 공중전화 박스 옆에서 형사가 자기를 감시해서 산으로 도망갔다 왔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그해 가을 서울 봉천동 보라매공원 후문 근처에서 친구와 자취를 하다가 주인이 형사라면서 도망쳐 나와 당시 살던 수원 집으로 피신해 오기도 하였습니다.

86년 말부터 그의 병세는 악화되어 형사들이 집에 도청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집안 식구들과도 일체 대화를 하지 않고, 누나와 필담을 나눌 정도였고,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고함을 지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후 87년 7월경 무단 가출하여 한달 동안 소식이 없어 가족들은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하였는데, 이후 병원에서 쓴 일기에는 투병하기 위해 지리산에 들어가 뱀도 잡아먹으면서 지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리산을 다녀와서는 한동안 표정도 밝아지고 식구들과 대화를 갖기도 했지만, 그런 상태는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88년 2월 16일 술먹고 들어온 그는 칼로 식구들을 위협하는 일을 벌이게 되고 이때까지 상태가 좋아지기만 바라던 가족들은 이 일로 그를 용인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정신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거듭하면서 나날이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약과 전기치료, 기(氣)치료도 소용없고, 병세가 악화되면서 점차 폭력적인 양상의 발병을 하게 되었습니다.

89년부터 일기와 글쓰기를 하고, 신문배달도 하면서 스스로도 병을 이겨내기 위한 집요한 노력을 벌이지만 이미 고문과 강박관념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에 걸린 심신은 치유하기 힘든 상태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91년 12월경 병원에서 외박 나왔다가 난간에 개줄을 묶고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으나, 줄이 끊겨 목숨을 건졌는 일도 있었고, 92년 11월경부터는 기억력도 상실되어 작년부터는 책임기, 글쓰기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기억마저 상실된 촉망받던 젊은이의 고통에 대해 외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6. 결의대회 구호

<주요 구호>

사법처리 정형근! 철폐 국가보안법!
고문 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제정하라!
반인륜적 고문 가해자 처벌은 공소시효가 없다.

-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은 국회를 떠나라!
- 제 2의 이근안,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사법처리하라!
- 정형근을 사법처리하고 국가보안법철폐하라!
- 국회는 제 2의 이근안, 정형근을 퇴출시키고 국가보안법철폐에 앞장서라!
- 고문 엘리트 정형근은 고문피해자에게 사죄하라!
- 정형근의 경력은 고문공안검사, 고문 안기부 수사국장
- 국회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형근은 진짜 '간첩'
- '고문'과 '정형근'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 고문학과 장학생 정형근은 국회에서 강제 퇴학조치하라
- 정형근을 사법처리하고 고문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라!
- "고문이 출세, 영전코스이다." : '고문장학생' 국회의원 정형근
- 정형근의 손에는 아직도 고문피해자들의 피가 마르지 않았다.
- 고문과 국가보안법으로 출세한 정형근이 사람이나
- 정형근의 전공은 '고문', 부전공은 '국가보안법', 취미는 '색깔론'
- 정형근을 접지하신 삼신할미 각성하라.
- 하루라도 '고문'을 하지 않으면 입에서 가시가 돋는다. 정형근
- 나의 경쟁자는 오로지 이근안뿐이다. 정형근

고문과 정형근, 국가보안법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

제 2의 이근안, 정형근 사법처리 촉구 및 국가보안법 철폐 결의대회 자료집

"반인륜적인 고문가해자
제 2의 이근안, 정형근에 대한
처벌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제 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 사회단체연석회의

722-5056-7 팩스: 722-6556 나우누리 : 사회정의

자/료/집/차/례

1. 결의대회 순서 ▶

2. 성명서 ▶

3. 제 2의 이근안,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이 저지른 고문만행 자료

▶ 서경원 / 방양균

- 심진구 (86년 민족해방 노동당사건 관련자/ 정형근에 의한 최대의 고문피해자)

4. 정형근과 한나라당에 묻는 공개질의서 ▶

5. 정형근이 공안검사, 안기부 시절 저지른 고문만행에 대해 고소,고발된 사건의 검찰처리 결과 ▶

1990. 1. 1부터 1996. 8. 31 현재까지 국가안전기획부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관련사안 및 변호인의 접견불허 등 직권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고발된 사건의 내용, 검찰의 처리결과 (정보공개요청에 의함)

6. 광주 전남지역 고문피해자모임 기자회견 소식 / 11.10일 ▶

7. 정형근에게 짓밟힌 민주화운동가들의 모임자료/ 11. 3일 ▶

8. 정형근 고문 약력 등 기타자료 ▶

9. 결의대회 구호 ▶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때는 여러분의 따뜻한 성금이 필요합니다. 또 관심있으신 분은 전화주세요 722-5056 팩스: 722-6556

국민은행 019-21-0894-243 서경원

농협 641054-52-054092 서경원

1. 결의대회 순서

1. 집회제목

제 2의 이근안, 정형근 사법처리 촉구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결의대회

2. 집회장소

여의도 한나라 당사 정문앞

3. 시간

11월 13일 (토) 이른 10시

4. 참가예상단체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광주전남 지역 고문피해자 모임/고문피해자모임(준)/민가협/민권공대위/전국연합/유가협/민주노총/민주노동당/전교조/전농/민교협/개혁정치를 위한 농민모임/공안검사 정형근에게 짓밟힌 민주화운동가들의 모임/여러 인권단체와 시민들

5. 주최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 (02-722-5056)

6. 집회 순서

- 애국의례 (사회자)
- 참가자소개 (사회자, 각 참가단체 대표 소개)
- 대회소개
- 정형근의 고문공작정치발언 규탄연설 (서경원)
- 정형근에 고문 받은 피해사례 발표 1 (방양균)
- 정형근에 고문 받은 피해사례 발표 2 (심진구 / 86년 민족해방 노동자당사건 관련자)
- 정형근과 국가보안법 반대 63인 규탄연설 (민권공대위 대표)
- 연대사 (민가협)
- 성명서 낭독 (전국연합 공동의장)
- 공개질의서 낭독후 전달 : 단체 어르신

현수막 1 -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은 국회를 떠나라!

발행 -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2 - 제 2의 이근안, 정형근을 사법처리하라!

발행 -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

제 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 연석회의(준)

제 2의 이근안,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즉각 사법처리하라 !

분단에 기생해 고문정력을 출세와 영전의 발판으로 삼은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 !

고문의 시대, 군화발의 시대에 마음껏 기득권을 누린 정형근이 여지껏 국회의사당을 활보하고 있습니다. 굶기야 11월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 서 '지리산 빨치산 수범유운'까지 서슴치 않았습니 다. 그는 안기부에 재직 할 때 당시 야당과 인권 탄압에 앞장섰고, 이를 정권안보에 악용해 온 책임이 있습니다. 또 1987년 안기부 대공수사국 단장 시절에는 박종철 고문 처사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해 '탁 치니 억 하고 쓰러졌다'는 명문장도 만들어 냈습니다.

이른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알게 된 수사기밀을 특정 기자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수사 성과를 홍보해 요직으로 영전했고, 또 서경원 전 의원을 조사하면서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와 연결시키기 위해 서 의원을 주먹으로 직접 때려 피를 새사발이나 흘리게 하는등 과거 안기부의 고문수사 관행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는 제 2의 이근안이나 마 찬가지이며 경찰 이근안을 뒤에서 더욱 세련되게 진두지휘하고, 조종한 공안검사출신이였으며 안기부에서 13년간 생사람을 간첩으로 만드는 공장의 공장장이었습니다

85년 구미유학생사건, 89년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임수경·문규현신부 방북사건, 화가 홍성담씨사건, 91년 사노맹사건, 92년 민족해방에국전선 사건, 김낙중씨사건, 손병선씨사건, 94년 구국전위사건 등의 통일애국인사 들을 13년 가까이 뼈집없이 고문하고 진두지휘한 정형근은 분단과 국가보안법에 기생해왔습니다. 통일을 여는 이 시점에서 정형근은 과거침산 제 1호입니다. 공안사건에서 고문과 언론을 동원한 여론조작에 앞장선 자 가 지금 언론랏하고 있는 게 말이나 됩니까. 국민이 보는 앞에서는 양의 얼굴을 하고, 캄캄한 과거의 지하실에서는 늑대의 얼굴로 간첩을 생산해 낸 이중성을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그런 그가 민주국회에서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게 한국 국회의 실 정입니다. 현 국회는 분단에 기생한 고문 정력자를 퇴출시키기위해서라도 국가보안법을 하루바삐 철폐해야 합니다.

전세계에서 지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 그철폐가 대세인데

도 불구하고 이사철, 김용갑등 한나라당 63명의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수호한다고 합니다. 이 한 가운데에 바로 정형근이가 서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언론의 자유, 인권탄압을 예기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이제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사법처리로 단죄하여 다시는 우리사회에서 반인륜적인 고문과 고문가해자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인권과 조국통일,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길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국내외 여러 인권, 민권 단체, 시민들과 함께 부당한 고문행위근절과 고문가해자와 그 배후색출 청산, 고문조작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제정,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앞당겨 고문피해자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 줄 것입니다.

정부는

1. 제 2의 이근안,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즉각 사법처리하라

1. 고문 가해자 정형근을 비롯한 가해자처벌에 공소시효 배제하라!

1. 과거 독재정권치하에서 고문조작된 피해자들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1. 고문기술자 이근안, 고문국회의원 정형근 등 고문가해자들의 배후조종자를 색출하여 엄벌하라.

1.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고문조작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1. 분단에 기생한 정형근을 즉각 사법처리하고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1999년 11월 13일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연석회의(준)

3.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이 저지른 고문만행 자료 ▶ 심진구(39)씨 사례

(86년 민족해방 노동자당사건 관련자/정형근에 의한 최대 고문피해자)

- 가족사항 :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0345-408-2322)에 살며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둘 있다. 최근 생계를 위해 마찌꼬바 일을 시작. 가족들은 남편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인 피해 때문에 힘겹게 살고 있다.

- 발악하는 전두환 정권 말기 86년 12월 10일 민족해방 노동자당사건으로 안기부에 연행, 다음 해 1월 15일까지 (박종철사건 터질 때까지) 37일간 살인적인 고문당함. 고문부위가 아물 것 같으면 또 때려 상처가 다시 생기도록 했는데, 박종철치사 사건이 터진 뒤에야 비로소 고문이 중지됐다.

- 지금도 양쪽 종아리는 물론 허벅지 등 온 몸에 상처가 있고. 당시 상처를 감추려고 뒤로 수갑을 채우고 옷을 입으면 잘 안보이게 하기도 했다. 당시 맞은 고문 후유증으로 상처부위가 여름엔 흐렸다가 겨울엔 진해지고, 14년동안 정신적으로 시달려 수시로 짜증이 많이 나고, 신경질이 많고, 몸이 쭈신다. 여전히 잠을 제대로 못자고 사람이 두렵다고 한다. 이런 몸을 이끌고 마지못해 입에 풀칠하기위해 '오기'로 일을 하고 있다.

- 정형근은 당시 안기부 대공수사국 수사 2단장이었으며 이해구(현재 경기 안성지역 한나라당의원)씨가 안기부 2차장이었다고 한다.

- 심 씨는 "정형근이가 들어와서 다 지시해서 때리거나 고문했으니 그놈이 지시하니까 더 나쁜 놈이다. 쫓다구는 시키니깐 하는 일이고. 나는 정형근이 보는 앞에서 당했다. 자기도 잔혹해서 더 이상 못 보고 자리를 떴을 정도이다"

- 성고문을 당한 것이 제일 치욕적이었다 : 당시 "손을 뒤로 한채 목을 제끼고, 책상위에다 남자 성기를 놓고 몽둥이로 쳤다. 두차례.. 10분씩... 차라리 죽는게 낫지...한 대만 맞아도 기절초풍할 정도다. 그들은 좋아라 하며 히히덕 거리며 즐겼다."

13년전 정형근이 진두지휘한 고문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어...

...성고문에다 몽둥이질, 잠잘 때 갑자기 발로차고...

또 발가벗긴 상태에서 뒤로 손을 제기고 발을 소돼지같이 묶어서 가자마자 “기죽이기”로 늘어지게 해서 혼을 뺐다. 그때는 전두환 말기였고, 86년 12월 24일~87년 연말연시라 안기부 수사관들이 울지로 입구 술집에 들러서 술먹고 들어와 술냄새를 풍기며 고문을 했다. 또 나는 술을 못하는데 술을 먹여 토해내고 뒹굴고 했다. 술먹고 난 뒤 더 고문이 심했다.

- 몽둥이질이 제일 참기 힘들었다 : “ 사실 전기, 물고문은 아무것도 아니다. 물푸레나무인 망치자루나, 해머자루, 야전침대자루(씻덩어리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로 계속해서 몽둥이질해 모세혈관이 썩고...피는 안나지만 계속 썩어...군대에서 단련된 몸이 기절하고 머리에서 피나올 정도였다.”

- 또 더욱 참기 힘들었던 것은 야전 침대위에서 깊은 잠을 잘 때 별안간 세명이 구둣발로 조인트를 깬다. 생각해봐라. 잠잘 때 이러면 엄청난 충격이다. 바로 이엄청난 충격으로 ‘공포심을 줘서’ 그때 잠결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 하게끔 한다. 너무나 무시무시했다.

- 14년이 지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바뀌는 데 14년이 지난 뒤에도 상처가 남아 있다. 정형근은 인간이 아니다!!! 동물...이다... 그리고나서 언론은, 언론을 가장 망가뜨린 정형근이가. 언론으로 국민을 희롱하고 있다... 이젠 늑대의 탈을 쓴거다. 문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고문’이다. 원산 폭격은 시시켰다. 수감채서 몽둥이로 목조르기, 목비틀기...고문은 끝이 없다..또 군대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닌데, 3년간 전방 근무한 것 때문에 더 맞았고, 3년간 전방 근무한 것 때문에 제3자하고 이복에 갔다왔다고, ‘간첩’으로 몰아가 올가미를 씌었다.

- 이근안과 정형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두환 초기 이근안이 정형근 검사의 지휘를 받았고 전두환 말기에는 안기부 대공수사국 수사 2단장인 정형근이 치안본부 대공관계와 경기도 경 대공분실을 총지휘하며, 고문전반에 대한 모든 실무 전략을 짤 것이라고 짐작한다. 정형근의 부하들이 이근안과 연결된 것은 당연하다.

- 86년 12월 10일~1월 15일 안기부에서 37일간의 지옥같은 생활을 떠나 구치소로 넘겨졌다. 1심에서 ‘간첩’이 아닌 국보법 7조 3조항건으로 5년 구형을 받았다. 당시 신건수 검사였으며 감옥에서 5개월을 보낸 뒤 악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있었다.

-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 몸이 망가지니 사람이 피폐되었다. 최근 나가는 회사에서 ‘어디 아프냐’ 그러면 잘릴까봐 안아프다고 하고, 아파도 건 강한 척 해야 한다. 기필코 정형근을 청산해야 한다!

4. 정형근과 한나라당에 묻는 공개질의서 ▶

공 개 질 의 서

제 2의 이근안, 정형근과 한나라당에게 공개질의한다

지난 11월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정형근이 주장한 ‘김일성을 만나 5만달러를 받은 국회 프락치간첩 서경원’이라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뱉고 있다. 인간이길 거부하는 정형근의 13년 간(83~95년)의 고문이력을 열거하니 이에 관하여 그 진상을 밝히고 성실히 대답하라.

1. 서경원 전 의원의 ‘김대통령 1만달러 수수설’에 관해 당시 안기부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검찰수사 담당자였던 이상형검사는 국회의원신분을 틀림없이 감안해 증거, 수감 채우고 포승을 묶어서 엮으려뻔쳐 기합주기, 한나절을 차렷 자세로 세워놓기 등의 고문과 협박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서의원은 1만달러수수설을 강제로 거짓 자백하게 되었는데, 이 거짓자백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가?

2. 당시 서경원 전 의원이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간첩들의 수법이라면, 의사3명이 교대로 치료해가며 왜 약을 먹이며 치료를 했는가?

3. 93년 4월, ‘공군의 지대공 미사일 배치현황’ 등 2급 군사기밀을 유출시켰는데도 그 뒤 집행유예로 풀려 난 일본 시노하라 후지TV 서울지국장과 북한에 국회수첩을 건네 준 혐의로 간첩이 된 서 전의원과 어느 쪽이 무게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중전화 박스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외국공관원 주소와 전화번호는 비치,남발하면서 서 전의원이 준 것만 간첩행위에 해당된다니 말이 되는가. 프랑스 드골처럼 사법처리과정에서 밝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시노하라 사건과 서경원 사건을 놓고 당당하게 국민앞에 밝힐 용의는 있는가?

4. 같은 사건의 방양균씨는 정형근이가 “김대중에게 준 친서를 밝히라”며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만부를 서경원 전의원에게 전달했다고 거짓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또 정형근은 도살장의 백정에 다름 아니었다고 한다. 정형근의 오른손에 왼뺨을 15분동안 맞아 눈을 떠보니 의사가 오하려 뺨을 뺨뺨홀리고 있었다. 그 뒤로는 오줌을 못누게 하고, 물을 못먹게하고, 잠을 안재워 제일 많이 잔시간이 2시간일 정도라고 했다. 정형근의 부하수사관 김군성이 매질을 하면서 받아 적으라고 해 결국 진술서를 그대로 작성하여 가족과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다는 것을 기억하는가?

재판과정에서 고문 증거보전신청까지 받아들여져 정형근이 고문한 증거가 그대로 드러났다. 방씨가 당한 고문도 ‘거짓’이라고 주장하는가? 방씨가 당했던 온갖 수모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문을 정형근 당신이 당한다면 강제 거짓자백을 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5. 정형근이 공안검사시절 사건말은 것은 늘 이번이 일어났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재판을 받고 있던 조성우씨의 전격 구속, 우원식, 배정환, 김상규씨는 1년의 1심형량을 3년으로 올리고, 장신환씨의 경우 소위 빨갱이로 몰아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을 구형했던 한 시대의 악명높은 공안검사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6. 92년 대선전 소위 이선실 사건때 9월 11~13일 사흘동안 안기부 지하실 117호에서 황인오씨를 비롯한 부인, 아들(4살), 어머니에게 저지른 고문만행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정형근이가 사흘 뒤 나타나 황인오씨 어머니 전제순(66) 씨에게 "너 이년 아들과 가족들 다 잡아들여 너 앞에서 총살시키겠다"고 했고 115호로 옮겨 '간첩의 어머니'라고 욕박지르면서 며느리 송혜숙 씨가 허위진술한 것을 보고 쓰라고 강요했다. 손자(황두하 4살)앞에서 며느리가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아기가 자면서 엄마때리지 말라고 잠꼬대했을 정도였다는 사실에 대해 할 말이 있는가?

엄마가 어두컴컴한 지하 수사실에서 아기를 앞에 두고 고문을 당하는 일이 남미에서나 있을 만한 만행이었음을 알고 있는가?

7. 87년 12월 10일 당시 삼립식품노동자였던 심진구(39)씨는 민족해방 노동자 전략당사건으로 연행돼 정형근이 안기부 수사단장 시절 고문프로그램에 의한 13년전의 상처도 일상생활에서 살 의욕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연행 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수사관들이 들어가면서 계속 때려 피오줌을 흘렸고, 잘 때 펜타가 붙어 야전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다. 그는 오죽하면 때리는 것은 참을 수 있었지만 간첩으로 모는 것이 제일 두려웠다고 했다. 정형근이가 2~3일에 한 번 들러 뒷집진 체로 담배파이프를 물고 나타나 "심진구! 이제 간첩이라고 불 때가 되었는데"라며 협박한 사실까지도 없다고 할 것 인가?

8. 뿐만아니라 85년 구미유학생사건, 89년 문익환목사 방북사건, 임수경.문규현신부 방북사건, 89년 화가 홍성담씨사건, 91년 사노맹사건, 92년 민족해방에국전선사건, 김낙중씨사건, 손병선 씨사건, 94년 구국전위사건 등의 통일애국인사들을 13년 가까이 빠짐없이 고문하고 진두지휘한 정형근이 국민이 보는 앞에서는 양의 얼굴을 하고, 컴컴한 과거의 지하실에서는 늑대의 얼굴로 간첩을 생산해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9. 정형근 당신은 공안검사와 안기부시절 경기도경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을 진두지휘한 사실에 대해 역사앞에 밝힐 용의는 있는가.

10. 제론할 필요없이 정형근은 검찰에 즉시 출두하여 수사에 응하고 사법처리를 받아들이 뒤 순순히 국회를 떠날 의향은 없는가?

11.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더 이상 정형근을 앞장세워 국가와 국회를 더 이상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뜻을 아는가?

제2의 이근안, 정형근을 심판하는 제사회단체연석회의(준)

<연락처 : 02-722-5056 >

1990. 1. 1부터 1996. 8. 31 현재까지 국가안전기획부가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관련사안 및 변호인의 접견불허 등 직권남용 행위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된 사건의 내용, 검찰의 처리결과

요 약

0 안기부 직원의 인권침해 관련사안 및 직권남용 관련고소 고발 사건은 총 66건으로 그 불기소 결정된 60여건의 내역 및 처리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0 나머지 6건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중이므로 그 내역을 제출하지 못함.

* 총 66건 중 정형근등 수사관들이 고소 고발된 사건은 19건이며 처리결과는 모두 한결같이 '혐의 없음'이라고 결정해 얼마나 수사 의지가 없었는지를 알 수 있음.

순번	피의자	고소고발인	고소사실요지	처리결과	담당
1	고영준외2	김학범외3	독직폭행	혐의없음	
2	이상연외1	장기표	불법감금	상동	
3	상동	최영도의외5	상동	상동	
4	상동	상동	직권남용	상동	
5	상동	전희식의외2	가혹행위	상동	
6	성명불상 수사관7	양홍관	상동	기소중지	박찬운 - 留學中 (중부당)
7	성명불상 수사관10	윤미향	불법체포, 가혹행위	혐의없음	
8	김군성의외1	방양균	가혹행위	상동	
9	한기선의외7	장창호	불법체포감금	상동	박연철(중부) 537-7102
10	성명불상 수사관5	조일준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상동	
11	이상연외3	박동운	불법감금, 폭행	상동	
12	유영원의외1	차익중	불법체포, 피의사실공표	상동	정성호 0351-873-3535
13	정형근외11	손민영	불법체포감금	상동	
14	성명불상 수사관8	양홍관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상동	
15	성명불상 수사관12	정명섭	상동	상동	유선호(사노) 국회의원
16	성명불상 수사관20	은수미	상동	기소중지	784-5078
17	성명불상 수사관9	박홍순	불법체포감금, 폭행	상동	박찬운
18	성명불상 수사관10	권종길	상동	상동	
19	정형근외10	한경입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혐의없음	유선영(중부) 3476-1114
20	정형근외4	송혜숙	상동	상동	이종걸(중부) 522-9993

순번	피의자	고소고발인	고소사실요지	처리결과	담당
21	정형근외8	이승미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혐의없음	심규철(중부) 582-5013
22	성명불상 수사관10	양동화	불법체포감금, 폭행	공소권없음	
23	정형근외8	이경섭	불법체포감금, 폭행	혐의없음	임재연 588-7765
24	상동	차정원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상동	
25	성명불상 수사관2	양동화	불법체포감금	공소권없음	
26	정형근외7	조덕원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혐의없음	최은순(중부) 637-0245
27	정형근외8	임종호	상동	상동	안영도(중부) 265-2863
28	성명불상 수사관6	현정덕	상동	상동	
29	정형근외14	신동욱	상동	상동	김창국(중부) 김제완 567-2316
30	성명불상 수사관	손성표	상동	상동	안상운 595-9444
31	성명불상 수사관8	강용주	불법체포감금, 폭행	공소권없음	
32	성명불상 수사관45	박기평	불법체포감금	혐의없음	
33	성명불상 수사관	황대권	상동	공소권없음	
34	정형근외1	임명규	상동	혐의없음	김제완(중부) 596-8001
35	박영선의외3	이은경	상동	상동	박연철(사노) 537-7102
36	정형근외1	은재형	상동	상동	한정화(중부) 522-3141
37	성명불상 수사관	김진주	상동	상동	
38	정형근외1	심상득	상동	상동	김한주(중부) 522-4706
39	성명불상 수사관	김태룡	상동	공소권없음	
40	이종기외3	김성만	상동	상동	

6. 11월 10일 광주 전남지역 고문피해자모임 기자회견 소식

민중의 기본권보장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제공

/ 민권신문 99/11/11 나우누리 찬우물

제 목:[민권신문] 고문피해자에게 희망을 / 올린이:민권신문(윤용)

11월 10일 오후 2시 광주 가톨릭 회관 앞 국가보안법 철폐 농성장에서 광주,전남 지역 고문 피해자모임(대표 방양균 017-321-8005) 주최로 기자회견이 열렸다.

방양균, 박동운, 박순애, 김양기, 조상록, 홍진표씨 등 고문피해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헌법 12조 2항 대한민국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는 엄연한 국민의 기본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독재정권은 수십년 동안 고문에 의한 강제 진술로 용공사건을 조작하고 많은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었다"며 이를 규탄했다. 또 고문기술자 이근안씨가 최근 자수함에 따라 이와같은 고문조작 사건들이 제대로 해결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었는데도 정부당국의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때문에 고문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문피해자에 대한 구제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대해 규탄했다.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 지역 고문피해자모임 일동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했다.

1. 국민의 정부는 과거 독재정권치하에서 고문조작된 피해자들에 대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2. 국민의 정부는 이근안 등 고문가해자들의 배후조종자를 색출하여 엄벌하라.
 3. 국민의 정부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고문조작사건의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라.
- 방양균 대표는 이와같은 요구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두서명과 국회농성투쟁 등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벌여 나갈 것이라 표명했다. 또 전국 각지에 있는 고문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 전국적인 차원에서 고문피해자모임을 결성할 것이라며 이후 고문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투쟁을 전국적 차원에서 벌여나갈 것을 피력하였다.

순번	피의자	고소고발인	고소사실요지	처리결과	담당
41	성명불상 수사관8	고대연	불법체포감금, 폭행	혐의없음	
42	성명불상 수사관10	장민성	불법체포감금, 폭행	기소중지	
43	김성수의2	정영	불법체포감금, 폭행	공소권없음	
44	성명불상 수사관8	석달윤	상동	상동	
45	정형근외13	손병선	상동	혐의없음	
46	오일환외1	김기수	상동	상동	박연철(사노)
47	이근안외5	함주명	상동	공소권없음	김선수(중부) 522-4706
48	성명불상 수사관7	강제윤	상동	혐의없음	조용환(중부) 567-2316
49	정형근외6	함정희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상동	박성호(중부) 564-9961
50	정형근외12	우진성	상동	상동	
51	정형근외12	변의숙	상동	상동	
52	이상연외4	박경준	불법체포감금, 폭행	공소권없음	
53	성명불상 수사관9	이원혜	상동	기소중지	
54	정형근외3	임인출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혐의없음	
55	성명불상 수사관5	박근홍	불법체포감금, 폭행	공소권없음	
56	정형근외10	신선아	상동	혐의없음	박주현(중부) 522-4706
57	정형근외6	최진섭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박성호(중부) 564-9961
58	정형근외14	박미옥	불법체포감금, 가혹행위	상동	윤종현(중부) 522-4706
59	성명불상 수사관7	남진현	상동	상동	
60	이상연외10	전희식의2	불법감금폭행	상동	

정형근씨! 우리는 귀하의 더러운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1. 고문기술자 이근안과 공안 검사 정형근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80년 초 그 엄혹한 시절에 민주주의를 열망하던 많은 젊은이들의 삶을 옥죄고, 고문까지 서슴치 않았던 악질적인 공안검사 정형근! 그리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안기부로 승승장구하던 정형근!

민주주의를 말살하기 위해 길길이 날뛰던 공안검사 정형근과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암울했던 군사독재 시절엔 같은 부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 다릅니다.

이근안은 만행의 단죄를 받기위한 심판에 들어갔지만, 공안검사 정형근은 국회의원 뱃지를 버젓이 달고 공작정치로 국회와 국민을 회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정형근과 같은 악질적인 공안검사가 국민위에서 행세하는 한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결코 진전될 수 없습니다.

정형근씨!

지금 귀하의 모습은 우리 가슴속에 묻었던 분노를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군사독재시절 대표적인 악질 공안검사가 현 정부의 언론탄압을 운운하고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마치 아무일도 없었던 것처럼 민주투사인양 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으로부터 밀려오는 슬픔을 억제할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개혁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진전은 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당신같은 공안

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한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일체부터 지금까지 청산하지 못한 과거의 대표적 인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니 비단 과거사의 청산차원에서만 귀하의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만행을 단죄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귀하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기자를 매수하고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국회와 국민을 유린하는 공작정치는 더욱 더 기승을 부릴 것이며, 군사독재의 망령이 되살아나 제2, 제3의 정형근이 우리의 정치를 더럽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3. 정형근이 손대면 모두 중형, 고문도 서슴치 않았다는 증언.

80년대를 열심히 살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은 모두 당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부모, 형제, 아내와 자녀들은 당신을 치명리는 공안검사로 그리고 지금껏 추호의 반성없이 민주주의와 개혁을 감히 말하는 인면수심의 가증스러운 사람으로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정말 탁월한 독재정권의 총독이었습니다.

귀하가 맡은 사건마다 늘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집행유예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고있던 조성우씨의 전직 구속, 우원식, 배정환, 김상규씨는 1년의 1심 형량을 3년으로 올리고, 장신환씨의 경우 소위 탈갱이로 몰아 무기징역이라는 극형을 구형했으며, 서경원 전 의원, 방양근, 심진구씨 등에게는 고문까지 서슴치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저런 새끼들 다 쓸어버려야 하는 데 참 법이 좋다(우원식)’ ‘다음에 또 들어오면 감호소로 보낼거야(유종성)’ ‘장기표가 탈갱이 짓하고 다니는 데, 너도 마찬가지로야(조성우)’

귀하가 우리에게 했던 수많은 폭언들! 20년이 지난 아직도 치명리는 기억으로 우리 가슴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귀하가 한 시대의 악명 높은 공안검사라는 사실은 동시대에 탄압받은 누구라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귀하의 행위는 과거 군사정권의 굴종이었던지 아니면 자신의 출세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제 솔직히 밝혀야 합니다.

4.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며, 모든 직함을 버리고 속죄의 삶을 살길 바랍니다.

1) 사법 당국에게 요청합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해 권력의 시너로서 온갖 만행을 저질러온 정형근의 과거를 철저히 밝힘으로써 이 나라의 사법권이 건재함을 보이기 바랍니다.

2) 한나라당에게 요청합니다.

한나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정형근과 같은 독재권력의 대표적 하수인의 의원직은 물론 일반 당원으로도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이런 이를 앞세워 정쟁의 일선에 세우는 것은 더욱 더 안될 일입니다.

3) 정형근씨에게 권고합니다.

과거 정권과 귀하의 유착관계를 밝히고, 재판을 통해서 인권을 얼마나 유린해 왔는가를 고백하십시오. 국민과 역사앞에 반성하고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십시오. 재발 민주 투사인 남 하는 위선적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십시오.

우리는 새천년을 2개월 남긴 이 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귀하를 용서하고 지난시기의 한스런 역사를 이제 정말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리하고 싶습니다. 귀하 역시 스스로 속죄하고 죄가를 책임짐으로써, 다가오는 새천년에 진정한 사죄와 용서와 화합의 새 장을 열길 바랍니다.

1999. 11. 3

-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 공안검사 정형근에게 짓밟힌 민주화운동가들의 모임

“김대중이 김일성에게 서찰주었다..자백하라” 정형근 직접 고문

서경원 전 국회의원...주간현대 단독 인터뷰

DJ 저격수 만나러온 정형근 의원 '저격 대상'에 올랐다. 88년 연직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복원을 병행, 정기에 대대적인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서경원 전의원이 최근 정 의원을 '당에겐 손과 여위시실 유포'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했다. 별다른 정 의원이 과거 안기부에 근무하던 시절 '고문, 폭행했다'는 진언의혹의 주장에서 시작된다.



이민학 대안정책연구소 부소장 서경원 의원. 정형근을 고문했다는 주장하는 서경원 전의원. (김상봉 기자)



그후 7월17일 검찰에 이송될 때까지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서 전의원은 이 조사과정에서 정형근 당시 안기부 차장과 조우하게 된다. 조사과정에 대한 일문일답.

"고문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데 언제부터 고문이 시작됐나. △지을 3월간은 서울 강남 어느 아파트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하고 경어를 붙였다. 그후 안기부 지하밀실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부터 잔 안 채우기 등 고문이 시작됐다. 구석에 아찔함과 복싱 허구만 달랑 놓여 있는 7-8명 크기의 방이었는데 6-7명의 수사관이 서로 돌아가며 신문했다. 라디오 세에 누운 군복비하 하-한 일히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88년 남북사건으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던 3월 3-1일 특사로 석방된 서경원 전의원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정 의원에 대해 “공개 대화”를 요구했다.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 당사자의 “그런 사실 없다”고 주장하는 정 의원 가운데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대질 신문’을 하자는 것.

“복원을 병행한 이유는 본당 고직의 구도를 깨뜨리는 데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제도 정치권에 입성하고 싶었다.”
“복원을 병행한 이유는 본당 고직의 구도를 깨뜨리는 데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제도 정치권에 입성하고 싶었다.”

“복원을 병행한 이유는 본당 고직의 구도를 깨뜨리는 데 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제도 정치권에 입성하고 싶었다.”

“만발인 상태였던 발등에 구두발로 올라가 그 큰 구구가 3백60도 회전을 하며 짓눌렸다. 이런 가혹행위가 4시간 넘게 계속됐다. 얼마나 피를 토했는지 바그렛 세그먼트를 토한 것 같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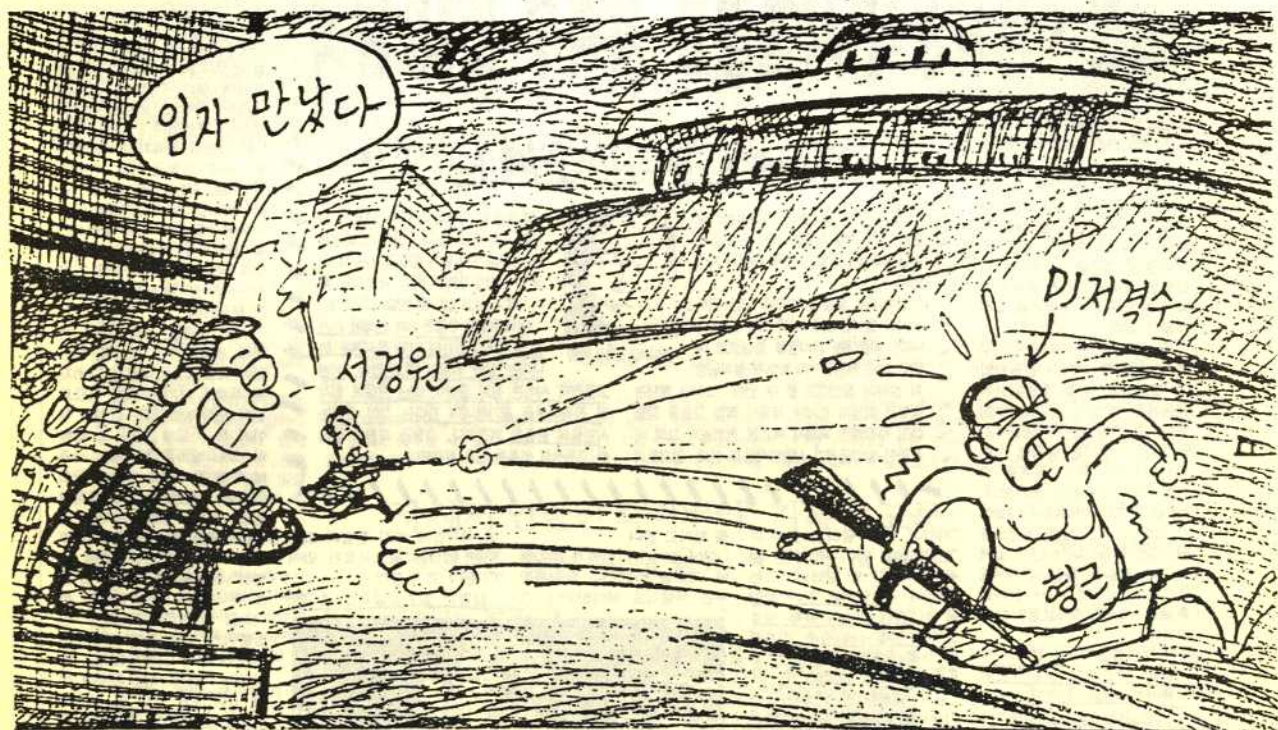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정형근 의원이 할 말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 TV 생방송이라도 좋다.”

99.3.13A

백무현



“鄭亨根씨에게 10여명 고문 당했다”

大韓每日 99.3.13A

밀입북사건 徐敬元전의원 과거사실 폭로

鄭亨根의원 “어떻게 의원 구타 했겠나”

徐敬元 전의원 등 일부 재야인사들이 대공수사국장 등 안기부 요직을 거친 한나라당 鄭亨根의원의 과거 고문사실 등을 폭로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89년 밀입북사건으로 8년7개월의 수감생활을 하다 3·1절 특사로 풀려난 徐전의원 폭로에 앞장섰다. 그는 지난 10일 '고문 국회의원 鄭亨根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도 발족시켰다. 徐전 의원은 “당시 鄭씨가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러닝셔츠와 군복비지만 입힌 상태에서 밤 9시 15분부터 새벽 1시 45분까지 주먹으로 구타했다”면서 “이렇게 직접 당한 사람이 10여명이요 모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도 20명이나 된다”고 소개했다. 그는 모 일간지와 인터뷰에서도 “鄭씨가 구두를 신은 채 맨발인(나의) 발등 위에 올라서서 밟고, 주먹으로 머리를 마구 때렸다”고 주장했다. “당시 金大中 평민당 총재가 金日成에게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자백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徐敬元 전의원

鄭亨根의원

鄭의원은 이에 대해 여권의 사주에 의한 ‘鄭亨根 죽이기 음모’라며 고문사실을 부인했다. 鄭의원은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을 어떻게 고문했겠느냐”며 “국정원이 徐전의원 주도 모임에 자금을 지원하고 제후해서 ‘정형근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반격했다.

이에 정치권은 신중한 반응이다. 국민회의는 “모든 것은 진실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나라당은 “徐씨가 고문에 의해 간첩이 된 것처럼 鄭의원을 들고놀여지는데, 오히려 자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姜東亨 yunbin@daehanmaeil.com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을 심



정형근 심판모임(준) 발족 기자회견. 정형근(중) 발족 기자회견. 정형근(중) 발족 기자회견. 정형근(중) 발족 기자회견.

정형근 심판모임 발족 내외선보 99.3.24A

취조실의 두 남자, 10년만에 재격돌

서경원씨 “고문 악몽 되겠다” 주장에 “정치보복” 반박

10년전 구 안기부 취조실에서 두 남자가 마주 보고 있다. 한 사람은 당시 구 안기부 대공수사국장 정형근(현 한나라당 의원)씨. 다른 사람은 북한을 방북한 국가보안법 피의자인 당시 평민당 국회의원 서경원(63)씨. 10년이 지나 서씨는 “정 의원이 고문수사를 해 간첩으로 조작했다”며 성토했고, 정 의원은 “고문 주장은 정권의 사주 받은 ‘정형근 죽이기’라며 맞섰다.

10년만에 죄를 묻고 받아치는 위치가 뒤바뀐 것이다. “처제에게 물방울 고문” 지난 10일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서씨는 “고문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정 의원이 민주주의의 전당인 국회를 할보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1989년 6월 24일 안기부로 연행됐다. 어느날 밤 정형근이 돌아와 ‘야, 이 XX가 식아, 김일성 밀정 노릇했다고 불어라며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을 4시간 넘게 구타했다. 나중에 보니 얼굴에 검은 페인트를 칠해놓은 것 같더라. 수사관들은 처제 입모씨까지 불러다 놓쳐놓고 물방울을 이마에 떨어뜨리는 고문을 가했다. 처제가 나중에는 바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고 하더라.”

무학자 농민 대 박사학위 의원

두 사람은 여러모로 대조적이다. 초등학교조차 못나온 무학자 서씨에 비해, 정 의원은 서울법대를 나와 미국유학까지 다녀온 법학박사이다. 농민 출신인 서씨가 가톨릭농민회 회장 등 주로 재야활동에 매진했다면, 정 의원은 검사로 일했던 안기부1차장까지 지내는 등 제도권에서 출세기도를 달렸다. 서씨가 정 의원의 탁월한 대공수사력에 의해 유죄가 확정돼 감옥에서 절치부심하는 동안 정 의원은 야당총재였던 김대중 현 대통령의 저격수로 이름을 날렸다.

10년전 지하취조실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이재는 당시 수사 책임자였을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의 대표가 됐다. 피의자를 물어뜯었던 수사책임자는 자기변호에 본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다들 뭐를 취조를 설명했다. 다음날 정 의원은 서씨가 자신을 고문 국회의원이라고 지목한 데 대해 “간첩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라며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씨는 13일 기자회견과 만나 정 의원이 자신에게 행했다는 고문

비서관 발양규씨 “고마 타졌다”

서씨와 함께 구속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형을 선고받고 1996년에 출소한 비서관 발양규씨도 고문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발씨는 “정씨가 조사 도중 다짜고 짜 주먹으로 밤을 때려 고마가 타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대 법의학실 이경민 교수로부터 ‘주먹에 맞아 얼굴 표피가 벗겨져 생긴 상처’라는 소견서를 받아 1993년 정 의원 등 수사관에게 물을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서·발씨는 “정씨가 반성과 사과를 하고 의뢰자를 배벌 때까지 고문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항상 피해자인 있고, 가해자는 없던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공방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다. (정종근 기자)

인·터·뷰 고문 주장하는 서경원 전 의원

“주먹으로 구타, 피멍 들어”

1988년에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방북한 이유는 무엇인가. 용일을 앞당기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였다. 분단으로 드는 국방비를 농민이나 노동자위해 투자하면 이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 용일의 참고담 트러 했던 것이다. 김 주석과는 무슨 얘기를 나눴나. 아산가족상봉, 대남비방방송 금지, 88올림픽 공동개최, 김수환 추기경 방북 같은 동질성 회복사업을 주장했고, 김 주석도 흔쾌히 동의했다. 농민운동가로서 당연히 가족종교관이나 군축을 통한 식량비축도 요구했다. 북한에게서 받은 5만 달러는 무슨 용도였나. 통일사업 활동비라며 내가 요구해 받아온 돈이다. 공작금이 라는 수사발표는 말도 안된다. 더우기 내가 김대중 총재에게 1만 달러를 줬다고 했는데 주면 다 주지 1만 달러만 줬잖나. 고문을 당했다고 했는데 장 안제우씨가 제일 힘들었다. 정 의원은 ‘김 총재의 친서

를 전달하지 않았다. 북한을 3번 갔다는 것을 인정해라며 밤 9시 15분부터 새벽 1시 45분까지 구타를 했다. ‘나는 간첩이다, 사형 당한다’는 언어폭력에 계속돼 나중에는 내가 진짜 간첩이라는 마음까지 들었다. 안기부와 검찰 수사과정에서 안기부 참대 각국 등으로 맞았다. 김대중 수사관은 ‘말 앞에서 자백을 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김 총재에 1만 달러를 건넌 사실을 인정하라’고 다그쳤다. ‘죽고 싶다’는 생각 뿐이었다. 앞으로 활동계획은 고문수사로 나와 비서였던 발양규씨를 간첩으로 몰았고, 수많은 민주인사를 범죄자로 만들었다. 이런 사람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어서 안된다. 그가 ‘정형근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내 사건을 포함해 고문피해사건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나고 소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정씨 뿐 아니라 정보수사기관으로부터 고문피해를 받은 사람들과 진상규명과 국가배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이겠다. (정종근 기자)

정형근 의원 반박 기자회견

“간첩들의 상투적 수법”

정 의원이 개별 인터뷰를 거절, 그가 11일 배포한 기자회견문 중 고문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요약해 실는다. (편집자 주)

(김대중 정권) 북한 고정간첩으로 10년을 선고받고 8년 반을 복역한 서경원, 그리고 비서관인 발양규를 사주하여 3월 10일 이른바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준비위원회’라는 사이비단체를 만들어 본 의원을 ‘고문 국회의원’으로 매도하는 데에는 본 의원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다.

서경원은 지난 1988년 8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밀입북해 김일성 및 허담을 면담하고 허담으로부터 지원과 함께 공작금 5만달러를 받아 남파된 간첩임이 확정판결을 통해 분명히 확인됐다. 고문조작 의혹 등은

간첩들의 상투적인 보위수단과 불과하다.

당시 이 사건은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사건이다. 그런데 이 소위 국회의원 신분인 사단, 수사과정에서 고문할 수 있다. 이제 석방되자마자 ‘고문 회의’ 운운 하는 사이비단체가 동원해 고문당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상투적도 아닌 사실이다.

현 정권은 간첩과 좌익사범 국민적 합의로 없이 무분별하게 풀어주고 있다. 급기야는 간첩을 잡아내는 안기부가 간첩

제후해 대공수사의 책임자였던 야당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정권의 실책이다. 간첩지 동원해 정치보복을 가한다 안보는 어디로 흘러가겠나. 대공 정권은 저급하고 비열한 정치보복을 그만둘 때가 됐다.

고 소 장

고소인 1. 서 경 원(370728-1657419)

서울 마포구 아현동 631의 26

2. 방 양 균(550210-1657222)

광주 광산구 우산동 1571의1 주공아파트 105동 601호

피고소인 정 형 근(현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1번지 의원회관 506호

명예훼손 등

고 소 사 실

고소인 서경원은 전 국회의원이고, 고소인 방양균은 고소인 서경원이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일때 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자이고, 피고소인은 전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국장이었으며 현재는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입니다.

고소인 서경원, 방양균은 1999. 3. 10. 김승훈신부, 이창복의장등 시민단체 대표 몇사람과 함께 피고소인의 국가안전기획부 재직시절 고문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피고소인은 그 다음날인 1999. 3. 11.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대중 정권은 간첩까지 동원한 비열한 '정형근 죽이기' 정치보복 공작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하에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회견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바,

"안기부내에 정형근 특별 내사팀을 구성, 도청 미행 친인척 계좌추적 등 온갖 뒷조사를 샅샅이 했으며, 심지어 본의원의 보좌진 여비서 등의 전화 휴대폰에 대하여 까지 불법 도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북한 고정간첩으로 10년을 선고받고 8년 반을 복역한 서경원, 그리고 비서관인 방양균 등을 국민에 대해 한마디 설명과 이해를 구함도 없이 무조건 사면복권시키고, 이들을 사주하여 어제(3.10) 기독교회관에서 이른바 '고문 국회의원'이라고 매도하는 데에는 본 의원의 인내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고문조작의혹 등등은 간첩들의 상투적인 보위수단에 불과합니다"

"당시 평민당은 간첩 서경원 밀입북 사건이 김대중 총재와 관련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김대중 총재의 연루의혹을 피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국가기관의 수사를 방해하는 등 당운을 걸고 총력적으로 투쟁을 펼쳤습니다"

"어떻게 소위 국회의원 신분인 사람을 수사과정에서 고문할 수가 있습니까"

"안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북풍과 총풍 등 신조어를 만들어 내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심지어 안기부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간첩을 잡아내는 안기부와 간첩과 제휴하여 대공수사의 책임자였던 야당의원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이 현 정권의 실체입니다"

등입니다.

(1) 먼저, 고소인 서경원은 당시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의 자격으로 북한에 입국하여 김일성 주석과 독대하면서 남파간첩 중단요구, 휴전선 비방방송 중단, 이산가족 면담과 왕래 서신교환 등을 주장하였던 것으로 당시 실정법에 위반되어 처벌을 받은 것일 뿐, 고소인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하였거나 특히 "고정간첩"이 아님은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고소인들을 직접 구타한 사실까지 있으며, 특히 고소인 방양균의 경우에는 주먹으로 맞았다는 내용의 서울대 이정빈 법의학 교수의 진단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하여 놓은 상태로서 고문을 가하였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명백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처벌을 구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완성이라는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빌미삼아 고소인들이 마치 있지도 아니한 고문사실을 조작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주장하고,

(2) 고소인들이 위 모임을 결성하게 된 동기는 석방된 후 동일한 고문피해자들을 모아 수사과정상 안기부에 의한 고문사실 등을 공론화함으로써 국가기관에 의한 고문이 근절되는데 기여하려는 순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한, 모임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모두 과거에 고문을 당한 사람들로서 국가안전기획부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없이 고정간첩인 고소인들이 마치 현정부로부터 사주를 받아 있지도 않은 고문사실을 주장하며 자신을 매도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출판물에 의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편, 고소인들을 "고정간첩"으로 표현함으로써 고소인들을 모욕한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소인 진술시 진술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 1. 기자회견문 사본
- 1. 각 신문기사 사본

1999. 4.

고소인 서 경 원
방 양 균

대 검 찰 청 귀 중

성명서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은 인간으로 돌아오라!

지난 11월 4일 한나라당의 부산집회에서 정형근이 주장한 '김일성을 만나 5만달러를 받은 국회프락치 간첩 서경원을 끌어들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 '김 대통령은 서경원에게 1만달러를 받아...' 등등에 관해 그 진상을 밝힌다.

1. 서경원 전 의원은 허위담위문장에게 통일사업용으로 10만달러를 요구했으나, 5만달러로 협의하여 가지고 왔다고 수사당시 안기부에서 밝힌바 있다.
2. 5만달러를 무슨 용도로 어디에 사용했는지 다 추적하여 확인한 결과 공작금이라는 근거를 찾았는가? 찾았다면 고문 국회의원 정형근은 서경원 전 의원과 언제 어떤 장소라도 만나 확인하자고 제안한다.
3. '김 대통령 1만달러 수수설'에 관해 당시 안기부에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고, 검찰수사 담당자였던 이상형검사는 2주간을 주야로 잠 안재우기, 수감채우고 포승 묶어서 엎드려뻗쳐 기합주기, 한나절을 치렛 자세로 세워놓기(서경원 전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신분이었다)등의 고문과 협박을 자행했다. 이로 인해 1만달러수수설을 강제로 거짓 자백하게 되었는데, 과연 이 거짓자백을 그대로 믿는 국민들이 있을 것인가?
4. 김포공항으로 5만달러를 몇몇이 가지고 왔지, 숨겨서 통과한 근거가 없다는 것을 정형근은 확인하지 않았는가? 또 이 사실은 당시 수사관들도 확인했던 사실인데, 그것을 벌써 잊어버렸는가?
5. 서경원 전 의원은 학교라고는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했다. 그런데 명문대 출신은 그토록 안타까울 정도로 비굴하게 노는가? 당시 서경원 전 의원이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간첩들의 수법이라면, 의사3명이 교대로 치료해가며 약을 먹었던 것은 장난이었던가?
6. 분명코 말하건데, 서경원 전 의원이 당했던 온갖 수모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문을 정형근 당신이 당한다면 강제거짓자백을 거부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양의 얼굴을 하고, 킁킁한 과거의 지하실에서는 늑대의 얼굴로 간첩을 생산해내는 그 공로가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렵지 않는가?
7. 어느 간첩이 김일성 주석과 독대회담하면서 '남파간첩중단'과 '휴전선의 대남 비방방송 중단'을 요구할 수 있던 말인가? 있다면 근거를 제시하라.
8. 서경원 전 의원은 정형근과의 싸움을 놓고, 국민회의와 협의나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9. 재론할 필요 없이 정형근은 검찰에 출두하여 수사에 응하라!

고문국회의원 정형근을 심판하는 시민모임

이 사장 김승훈 신부 대 표 서경원 전 국회의원
 이 사 양 비엔네 수녀 고 문 임기란
 <연락처 : Q2-722-5056>

"2주동안 잠안재워"

□ 시면에서 이어집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11일 서씨와 방양균(房羊均·44·당시 비서관), 방형식(房炯植·31·비서)씨 등 3명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서씨 등을 상대로 정의원이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89년 밀입북 사건과 관련해 김대중대통령에 대해 언급한 내용의 진위 여부 등을 조사했다.

서씨는 "북한 허담(許鎔)에게서 받은 공작금 5만달러 중 1만달러를 당시 김대중평민당총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고문과 검찰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이날 검찰에 출두하면서 "안기부에서 조사받을 당시 정의원이 2주 동안 잠 안재우면서 구타와 고문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수사 관계자는 "정의원으로부터 고문을 당했다는 서씨의 고문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그 자체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안기부와 검찰은 '서의원이 88년 8월 2박3일간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金日成)과 면담하고 체류 마지막날 허담으로부터 농민운동지원금 명목으로 5만달러를 받았으며 김대중 당시 평민당총재는 이 중 1만달러를 서의원으로부터 받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변영욱기자

서경원 전의원이 11일 서울지검에 출두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고문 조작 주장의 진위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최영훈·이수형기자>
cyhoon@donga.com

□ A2면으로 계속됩니다

'徐敬元씨 밀입북 사건' 검찰 전면재수사 착수

89년 수사당시 안기부원-검찰관계자 소환

"고문 허위자백" 주장 진위여부 규명키로

"과거 들춘다" 野반발 과문예상

검찰이 89년 정치권에 엄청난 회오리를 일으켰던 '서경원(徐敬元)전의원밀입북사건'과 '명민당 김대중(金大中)총재 불고지(不告知) 사건'의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A3면에 관련기사>

이에 따라 정치권과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찰 내부에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丁炳旭 부장검사)는 11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빨치산식 수법' 발언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사건 수사를 계기로 고문 조작 시비가 일었던 이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고위 관계자는 "명예훼손 사건의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이 사건이 고문에 의해 실제로 조작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할 수밖에 없고 필요할 경우 당시 수사관계자들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의 사건을 들춰낸다는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과문이 거셀 것으로 보이지만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당시 서씨를 수사했던 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관계자들과 당시 검찰관계자들도 소환해

'鄭亨根의원 퇴출' 본격 착수하나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사건과 평민당 김대중(金大中·현대통령)총재의 불고지(不告知)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면 재수사는 국민회의측이 9일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을 그의 '빨치산 수법' 발인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고발의 계기가 된 것은 정의원이 4일 한나라당 부산집회에서 "김대중씨는 서경원의 밀입북 사실을 불고지하고 공작음을 받았다"고 발언한 것. 국민회의는 고발장에서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이례적 公安部배당

따라서 명예훼손 혐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는 정의원이 언급한 서경원의 밀입북 및 불고지 사건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따라서 법논리적으로 서경원의 사건에 대한 재수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이 사건이 그동안 고문 및 조차 시비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논란과 시비가 이어져온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그러나 법논리만으로 재수사의 배경을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검찰이 "서경원의 사건 등은 10년 전

검찰 "D J 공작금 수수발언 규명" 의지
고문 시비 가려 명예훼손 여부 판단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사건 일지

88년8월19~21일	평민당 서경원 의원 밀입북
89년 6월22일	서의원, 평민당 지도부에 방북시일 보고
6월25일	안기부, 서의원 수사처수
6월27일	서의원 구속
7월27일	평민당 김대중총재, 문동환 전부총재 등에 대해 구인 8명 발부
8월2일	안기부, 김총재·문부총재 구인 수사
8월12일	검찰, 서의원 간첩죄 등으로 구속기소 김총재와 평민당 김원기 원내총무 불고지 혐의로 인민
8월25일	검찰, 김총재·김총무·평민당 이철용의원 불구속 기소
90년 4월25일	서울고법, 서의원에 대한 형소심에서 징역 10년·선고
91년 5월25일	검찰, 김총재에 대한 공소 취소

수사로 이미 확인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재수사를 안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 것은 '대통령이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스스로의 '의지'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김대통령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 억울한 때문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고 말할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한

에 본격 착수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정의원이 연루된 언론대책 문건 사건의 수사방향이 정의원에 게로 집중되는 시점에서 이 사건 재수사를 착수했다.

金대통령 참고인조사 불가피

재수사의 파장은 상상 외로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대한 참고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 사건 수사는 수사 결과에 따라 김대통령과 정의원 등 어느 한쪽의 '상처'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긴장도를 더하고 있다. 서경원의 사건이 재수사에서도 사실로 밝혀지면 고발인인 국민회의와 김대통령은 고고협의를 피할 수 없다. 반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당시 수사선상에 있던 검찰관계자와 안기부 대공관계자 등의 처벌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또 검찰 조직도 이미 수사해 끝낸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당시 수사에 관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을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검찰 고위간부는 "20세기 마지막 대사건이 될 것"이라며 "가슴이 떨린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

sooh@donga.com

89년 정국 公安폭풍 물고와

'徐敬元사건' 이란

D J 강제구인 수모
1만달러 수수여부 공방
91년 공소취소·규명못해

'서경원(徐敬元)의원 밀입북사건'과 그 연장선에 있는 '김대중(金大中)총재 불고지(不告知)사건'은 89년 한해를 공안정국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은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으로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통령은 89년 8월 안기부로 강제 구인돼 21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서울지검에서도 15시간 가량 조사를 받는 수모를 당했다.

당시 정치권에서 공방을 벌인 주요 쟁점은 김대통령이 88년 9월 초 서의원으로부터 평민당 중앙당사 총재실에서 1만달러를 받았는지 여부, 안기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서의원이 북한에서 받아 5만달러 중 1만달러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cyhoon@donga.com

검찰은 서씨와 방양관비서관 등 관련자들을 추궁한 끝에 '서의원이 김총재에게 귀국인사를 하면서 흰 종이에 포장한 선물을 들고갔다'는 방비서관 등의 진술을 받아들였다며 이들의 진술과 외화환전영수증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는 안기부에서도 적발하지 못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다며 수사팀에 거액의 격려금을 주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수사는 관련자의 진술말고는 물증이 없었고 환전영수증도 3만9900달러밖에 찾지 못했다. 당시 김대통령은 "서의원이 돈이 없어 의원회관에서 생활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돈을 받았겠느냐"며 "가당치도 않은 조작"이라고 부인했다. 서의원은 변호인 점검이 이뤄지면서 "(수사기간 중)거의 잠을 재우지 않아 생리적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고문에 의한 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91년 5월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 법정에서도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다. <최영훈기자>

鄭亨根씨 수사 깊숙이 관여

당시 누가 지휘했다

徐敬元씨 말아 조사
安應模씨등 수사관계자
사건후도 D J와 불편

서경원(徐敬元)전의원 밀입북 사건과 평민당 김대중(金大中·현 대통령)총재 불고지 사건 당시 수사 선상에 있던 안기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대부분 사건 이후에도 김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였다.

당시 안기부 수사는 서동권(徐東權·현 변호사)부장과 안응모(安應模)1차장, 정형근(鄭亨根·현 한나라당 의원)대공 수사국장이 지휘했다. 이들중 수사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정의원, 서경원의 등 수사 당시 정의원이 자신에 대한 고문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서경원과 김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는 서울지검 공안1부가 맡았다. 당시 검찰총장은 김기춘(金基春)현 한나라당 의원이었으며 서울지검장은 김경희(金慶喜)현 형사정책연구원장이었다.

또 공안1부를 지휘하는 1차장에는 김기수(金起秀·현 변호사)전 검찰총장이 있었으며 공안1부장은 안강민(安剛民·현 변호사)전서물지검장이었다. 서경의원과 김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이상형(李相亨·현 경주지청장)검사가 맡았다.

수사팀사중 김 전총장 등은 새정부 출범 이전에 퇴임했으며 안 전 검사장은 지난해 3월 서울지검장에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옮겨다가 6월 사시동기가 검찰총장에 오르는데 바람에 고검장 승진을 못하고 퇴임했다. 이지창장도 대검 공안부과장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6월 인사에서 경주지청장으로 발령받았다.

당시 수사대상중 구속기소된 사립은 서경의원과 방양균(房羊均)비협력위원장 등 8명이었으며 김대통령과 김원기(金元基)평민당 원내총무 등 8명은 불고지 및 외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91년 5월 국가보안법 일부 개정 때 김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했다. <신석호기자>

kyle@donga.com

성명 : 정형근 (鄭亨根)

<< 기본사항 >>

성명 : 정형근(男) 鄭亨根 :Jung, Hyung-gun 생년월일 :1945/07/26 경남
직업 :국회의원 한나라당 정세분석위원장
직장전화 : (02)782-2000

<< 학력사항 >>

~1964	경남고등학교		고등학교졸업
~1968	서울대학교	법과	학사
~1975	서울대학교	국제법	석사과정수료(중
~1980	미시간대학교	형사법	석사과정수료(중
~1991	서울대학교		박사과정졸업

<< 경력사항 >>

1973 ~ 육군 법무관
 1975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1977 ~ 춘천지검강릉지청검사
 1978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79 ~1983 수원지방검찰청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1983 ~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법률담당관
 1984 ~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실 법률담당보좌관
 1985 ~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 수사2단장
 1988 ~ 국가안전기획부 대공수사국장
 1992 ~ 국가안전기획부 수사차장보
 1994 ~1995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
 1995 ~ 현직 변호사 개업
 1995 ~ 신한국당 부산 북 강서 갑지구당위원장
 1996 ~ 현직 15대국회위원(부산북·강서갑 신한국.한나
 1996 ~1997 신한국당정세분석위원장
 1996 ~ BBS연맹 총장
 199808~ 한나라당 총재대행 비서실장
 199808~ 현직 한나라당 정세분석위원장
 199811~ 현직 한나라당 기획위 위원장

<< 저서/작품/역서 사항 >>

역서 존에드거 후버
 역서 고르바초프, 8월의 쿠데타
 역서 보리스 옐친
 역서 경제전쟁과 美CIA 저서: 국제테러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상훈사항 >>

보국훈장국선장
 검찰총장표창 보국훈장천수장

▣ 국회에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2일 열린 임시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지난 12월 말에 우리 모임이 제출한 '고문피해자 보상 특별법 제정 고문피해 대책 촉구 청원' 건이 다루어져 청원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사실이 늦게야 알려졌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에는 강수립의원(민주당인권위원장)이 선임되었는데, 소위원회가 구성되었다 해도 실제 소위원회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아무런 소득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국회와 행정, 사법부에 대한 끊임없는 촉구 노력으로 청원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 다시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유엔 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천명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지난 4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유엔 50주년 기념준비위' 발기인 총회에서 "오는 임시국회에서 동의를 받는대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승주 외무부 장관은 작년 6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서 각국의 대표들 앞에서 93년 안에 유엔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래 수 차례에 걸쳐서 협약의 가입을 약속하고도 지금까지 가입을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법무부 등 일부 정부기관의 반대로 인해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협약에는 고문방지를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가 규정되어 있고, 고문피해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원상회복을 위한 법체계를 보장해야 하며, 협약에 가입한 국가는 이행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협약에 가입하는 것이 실질적인 조항은 유보를 하고 형식적인 비준, 가입으로 그칠 공산이 커서 이에 대한 감시와 촉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박정기 대표 심근경색증으로 입원

박종철 열사의 아버님이시고, 우리 모임의 대표를 맡고 계신 박정기 아버님께서 지난 4월 15일(금) 갑작스런 심근경색증으로 인해 고려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한때 박 대표께서는 상태가 악화되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으나, 현재(4월 25일)는 일반 병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계시며, 5월 중순에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 오는 5월에는 고문피해자 가족의 청와대 집단탄원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재정의 확보를 위해 연세대 안에서 하루주점을 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잡히는대로 회원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선 자원봉사자는 고문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남녀노소, 학력을 불문하고, 고문에 관심있는 분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자원봉사자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필요한 일을 협의해서 조건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 중고 컴퓨터를 찾습니다. 정리할 자료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컴퓨터가 없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못 쓰는 286급 이상의 컴퓨터면(물론 새 것이면 대 환영) 아무거나 좋습니다.

▣ 4월부터 박래군 총무가 상근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바랍니다.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소식 5호

발행인: 박정기/발행일: 1994. 4. 25/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 5층/T. 796-8364 F. 796-8366

<권두언>

고문과 십자가

참여연대 인권 자료실		
일	분류기호	자료번호
	B10.1	8

최의팔(부대표, 청암교회 목사)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한다. 그래서 4월 부활절을 맞으면 요란스럽게 축제를 갖는다. 이런 축제 속에 십자가와 부활절의 참뜻은 사라지고 형식적이고 고리적인 것만 강조하게 된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으며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부활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십자가에 대한 고리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십자가를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십자가는 극심한 고문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지배세력에 대한 반항자들, 특히 정치범들을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함으로써 이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일반사람들에게 엄청난 공포를 갖게 해서 지배세력에 도전할 수 없도록 한 형벌이었다.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문은 무척 견디기 어려웠다. 곧 죽게 된다는 심리적 공포 뿐만 아니라 아무 것도 먹지 못하고 창에 찔려서 피를 흘리게 되어 갈증과 육체적 고통은 엄청났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신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그 고통을 잊도록 도와주기도 했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문을 받았을까? 이러한 질문 자체를 바꾸어 보면 고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즉 당시 지배층은 왜 예수님께 그런 고문을 행했을까? 불의한 권력이 자신들의 불의함을 감추기 위해서이다. 역사의 시작부터 오늘까지 불의한 지배층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언제나 고문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고문에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유엔은 고문방지협약을 맺고 우리나라도 곧 이에 가입하리라고 본다. 이렇게 고문받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저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다. 즉 예수님처럼 고통을 받으라는 말씀이다. 현재 고문을 받고 있거나 받은 분들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잘 따랐다"고 칭찬하실 것이다.

문국진씨가 10개월이 넘는 병상에서 다시 우리의 세계로 돌아왔다. 우리는 문국진씨와 같이 흔히 고문후유증에 시달리는 분들을 동정적인 차원에서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분들은 직접 고통을 받을 용기가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러한 고통을 짚어낸 것이다. 우리는 그분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감사하면서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체화할 때만이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문국진 지금은

문국진씨는 지난해 6월 26일 고대 구로병원에 입원하여 9월경 퇴원하였으나 상태가 안 좋아 일주일 만에 다시 입원하였다가 신체감정을 받기 위해 연세 세브란스 신촌병원에 2주간 입원하면서 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대병원에 입원하여 어려운 치료과정을 마치고 10개월 만인 지난 4월 12일 건강해진 모습으로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2주에 한번씩 고대 구로병원에 가서 외래진찰을 받으며 크로자핀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조심스럽게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사회생활에 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생활계획은 본인이 취미생활로 즐기고 있는 바둑을 개설서 정도의 책으로 펴내려는 구상과 함께, '알기 쉬운 철학서'를 집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간의 기나긴 병원생활을 잘 참고 치료에 임한 문국진씨의 퇴원을 축하 드리며, 아울러 문국진씨의 치료를 위해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과 같이 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2년간 내주실 회비를 일시불로!

그동안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에는 많은 분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 정성이 모여서 문국진씨가 그동안 치료를 받고 퇴원할 수 있게 되었고, 재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국진씨의 병세가 현재는 호전된 상태지만, 언제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고, 또한 이후에도 문국진씨의 생활과 재판, 모임의 활동, 그리고 문국진씨 외에도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사업 등 앞으로도 재정이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대표자회의의 결정대로 그간 매달 보내주시던 후원금을 일시불로 변경하여 95년까지의 회비를 납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매달 넣어주시는 분이 그대로 납부해주셔도 좋으나, 가급적이면 일시불로 납부해 주시면 보다 효과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관리도 쉬워질 것입니다. 모임에서는 단 한번 회비를 납부해주셔도 똑같은 회원으로 대우를 받습니다.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지난 4월 11일 토론회 행사에 지출된 돈은 자료집 42만원을 비롯하여 총 1,258,300원이었고, 수입으로는 주최단체 분담금, 후원단체 후원금 등으로 총 1,080,000원이 들어와서 17만8천300원이 모임의 부담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촌에 있는 민주주점 웨드라 아줌마가 모임에 3월과 4월에 2회에 걸쳐 1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웨드라는 연대 출신 운동권의 단골 술집이었습니다.

■ 지난번 토론회 행사 안내장 발송이 주소록의 관리 잘못으로 인하여 발송되지 못한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양해를 바라며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

고문후유증 대책에 대한 진지한 모색의 자리

지난 4월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강당에서는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등의 주최 단체와 후원 단체들의 회원, 각 언론사의 기자들이 모여서 약 3시간 가량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대책에 대해 진지한 모색을 했습니다.

행사는 박래군 총무의 사회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유선호 변호사의 개회인사, 발제,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토론자의 발언, 토론, 박정기 대표의 폐회인사의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전해철 변호사는 '고문의 근절과 고문후유증 해결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는데, 개인의 존엄성과 국가의 도덕성을 침해하는 범죄인 고문을 현행 법제도는 명백히 금지하고 있으나,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참여권, 고문에 의한 자백의 증거 능력 부정, 고소의 실효성, 변호인의 접견권의 활용, 증거의 확보, 시효의 문제 등에 한계가 있고, 결론적으로 현행 법제도에서는 고문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이 끊이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고문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사법부에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일반형사범에 대한 고문의 무감각증이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양길승 성수의원 원장은 '의학적 측면에서 본 고문의 심각성'이란 제목으로 발제를 했는데, 고문후유증은 신체적인 것으로는 각종의 통증이 있고, 정신적인 후유증이 아주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다른 나라의 조사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고문후유증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각국의 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결론적으로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고문반대를 한 목소리로 외쳐야 하고, 고문을 자행한 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료인은 절대적으로 고문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는 동시에 고문피해자를 돕기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하며, 고문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기관이 꼭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김종경씨 부인과 강환용씨 누님은 그동안 겪었던 가족과 본인들의 고통을 말하면서 "선량한 시민에게 가해졌던 고문과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고문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간 참았던 설움에 복받쳐 제대로 말씀을 잊지 못해 자리를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토론자로 나온 오완호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유엔 고문방지협약과 국제엠네스티의 12단계 고문방지조치 등을 설명하면서 유엔고문방지협약의 비준을 촉구하였고, 조홍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정신질환과 관련한 사회복지법의 성격을 띤 법이 없고,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리서비스체제, 사회재활 서비스체제의 도입, 민간 차원의 전문가들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홍보작업을 벌일 것과 고문백서의 발간을 주장하였습니다. 박우섭 민주당 정책실장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고문 금지와 고문후유증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법이 제정되기 위한 제도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토론회는 워낙 생소한 문제가 되어서인지 활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료집은 110쪽의 분량에 발제자들의 발제문, 오완호 사무국장의 토론자료, 15건에 이르는 고문후유증 사례, 유엔고문방지협약, 고문후유증 관련 외국자료, 문국진씨 소송자료, 신문자료 등을 실어 고문후유증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행사는 애초 목적성이 뚜렷하지 못한 점, 홍보의 부족, 후속작업과의 연계 부족등의 문제로 거의 관심있는 일부인사의 참여로 폭이 제한되었다는 한계를 가져서 이 행사를 통한 고문과 고문후유증의 심각성을 알려내는 행사로는 만들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자료
		B 11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 연락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404번지 기원빌딩5층
전화: 796-8364, 5 팩스: 796-8366 [우] 120-142

모금안내

문국진 주택은행 420802 92 104167
 국민은행 027 21 0568 670
 상업은행 126 08 171760
 조흥은행 371 06 147478

고문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발족 자료집 -

- * 사건기록
-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사업계획
- * 고문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해인이 아빠
- * 담당 의사 소견서
- * 언론 보도기사
- * PC 통신 편지 모음
- * 수사기관 고문피해 사례
- * 참고자료 - 고문피해자의 정신병리학

1993. 10. 13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 활동 계획

1. 대책위원회 활동의 목적

- 1) 문국진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신병의 치료와 주변 여건을 갖추기 위한 제반 활동을 모색한다.
- 2) 법정투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 3) 고문의 반인간적 폐해를 사회에 알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모범적인 활동을 한다.

2. 주요 활동내용

- 1) 신병 치료와 법정투쟁 등 활동을 위한 기금모금
각 소모임별로 책임자를 정하여 적극적인 모금사업을 벌인다
언론 및 각 운동단체의 기관지를 통한 대중, 모금사업
자금마련을 위한 기타 사업(하루차집 등)
- 2) 법정투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증거 확보
80년 고문시 관련자들을 최대한 알아낸다(79학번, 인간연구회 등)
다산·보임 사건시의 고문을 입증할 여러 자료와 증언
기타 정황을 증거할 수 있는 각종 언론자료
- 3) 문국진 고문사례를 중심으로 고문 문제를 사회문제화

3. 그간의 경과와 언론 보도 내용

7. 27 문국진 고문피해 대책위원회 준비위 발족
7. 9 연대 79학번 모임
7. 20 한겨레신문 '동네방네' 기사 실림
7. 23 문화일보 '과거는 물어야 한다' 기사 실림
9월 '말'지에 기사 나올 예정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첫발을 내디디며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괴로움들, 미발달한 우리의 운동, 나약한 육체,
이 사회가, 이 생존이 강제하는 하루하루의 어김없는 삶의 굴레.
아! 우리의 생명,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살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물고문으로 슬बर한 순간 또는 전기가 생체를 관통하
여 의식을 잃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가
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구려.
당신은 아직도 이 동터 오는 새벽의 시대에 암을 속에 감혀 있는가요?"
(1993. 6. 23. 문국진 씨가 아내에게 쓴 편지 중에서)

김영삼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분적으로 폭로된 부정과 부패가 과거 군부독재정
권 아래서 이 사회의 한 단면이었다면, 바로 그 뒷면에는 헤아릴 수조차 없는 수
배, 구속, 고문, 타살, 분신, 의문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
습니다. 이 두 단면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정과 부패'라는 역사적인 현실은 권력유지의 필요성때문에 부분
적으로 폭로되고 있지만, 수배, 구속, 고문, 타살, 의문사 등은 역사의 '기억' 속에
묻혀 버리고 있습니다. 반면 그 고통은 이 사회 전체가 나누어 질머지고 가야할
것으로가 아니라, 한 개인의 혹은 한가족의 상처와 명예로만 남고 있습니다.
문국진 씨의 '고문피해'는 사실 수많은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고대 구로부속병원 10층 정신병동에 3개월 넘게 입원해 있
는 문국진 씨는 15년 전만하더라도 연세대학교 철학과, 학생으로, 이 사회의 근본
적인 민주화와 고통받는 민중의 현실과 역사 속에서 지식인의 임무에 대해 고민
하던 총명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의 동장은 이 청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켜버렸습니다. 1980년,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을 때, 프
락치활동을 강요하는 치안본부 형사들의 무차별 구타와 물고문, 전기고문은 이 청
년의 육체만이 아니라 내면의 '정신'까지도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후 86년까
지 출판사 편집장 일을 하면서 정상인과 다른없는 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똑같이
찢긴 내면의 상처는 끝내 회복되지 못하여, 86년 '보임, 다산 사건'으로 구속되었
을 때, 심리적 압박과 3일간 잠안재우는 조사와 구타와 독방 감금으로 '정신 질
환'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질환'을 단지 개인적인, 혹은 가족의 불행
으로만 여기는 사회적 풍년과, 80년대의 억압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후 여
섯 차례에 걸친 '정신질환'의 재발과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도 모든 고통을 문
국진 씨와 가족들이 소리없이 짊어져야만 했습니다.

'정신분열, 피해망상, 편집증' - 이 모든 병세는 분명 군사독재정권이 한 청년의
삶에 가한 고문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그 고문은 단지 문국진 씨 개인만을 향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회 전체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자
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국진 씨의 '정신 질환'을 '개인적인
불행'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국진 씨에게 새롭게 관심과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단지 한 개
인의 불행과 고통에 동참하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문국진 씨의 고통과 불행을 외
면하는 이 사회의 '정신 질환'을 치유하는 첫걸음으로 우리는 문국진 씨의 고통
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의 '정신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문국진 씨를 고문하고 그의 삶을 분열시킨 '국가'에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하
고자 합니다. 문국진 씨의 고통을 외면한 채, 이 사회가 정상적이고 건전할 수
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국진 씨가 자신의 '정신 질환'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질
병'을 치유해 나갈 주체로 다시 나설 수 있을 때까지 '문국진 씨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나아가 다시는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야만적인 고문이 더 이
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국진과 함께하려는
오늘의 첫걸음은 단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근본적인 민주
화를 향한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문국진과 함께'하려는 노력은 바로 우리 자신
의 '미래의 삶'을 위한 것입니다.
1993. 10. 13.

청량리경찰서에서 발병하기까지 60일간의 사건기록 (1986. 10. 12 ~ 1987. 2. 28)

- 청량리경찰서 자수 (1986. 10. 12)
- 청량리서 대공과에서의 생활(10. 12 ~ 11. 22: 40일)
자수해서 구속된 상태로 사복착용
- 청량리서 대공과(10. 12 ~)
- 청량리서 유치장(~ 11. 22)

- 성동구치소(1986. 11. 22 ~ 12. 12 : 20일) 죄수복 착용
- 성동구치소
-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 (10일정도)
- 성동구치소 내 징벌방 (4일정도)
-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독방

-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1986. 12. 12 ~ 1987. 2. 28)

청량리 경찰서 대공과에서의 생활 (10.12~11.22:40일 동안의 생활) 자수해서 구속된 상태로 사복착용

3일 동안 잠을 안 재우고 취조실에서 조사함. 조사내용은 '1. 백원담이 어디 있는지 대라, 2. 나머지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대라, 3. 부천에 살던 집을 대라'는 것이었음. 이 당시 조사과정에서 이전 T방 3개를 얘기했고 79모임방은 얘기를 안했는데 경찰들이 "요 부근 아니냐"는 등의 유도심문을 했는데 이미 그들은 방을 알고 있었다. 본인은 진술서도 한 번 쓴적 없었다고 함.

경찰서 내에서 일어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

3일간 조사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말도 안 걸고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있게 했을 뿐이다.

-경찰들이 무언의 겁을 주는 발언들을 하며 석유통을 문국진의 앞에 놓거나 들고 왔다갔다 함. 석유난로는 문국진과 먼 거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_문국진과 정면으로 보이게 비디오를 틀어놓고 이상한 프로그램을 계속 틀어줌.

_청량리경찰서 과장이 "막대기 30센티미터짜리를 몇개 만들어라""어머니한테 가서..." 등의 공포적인 말을 뇌까림.

_그외에도 별별 일이 다 있었으나 자세히 본인은 현재 기억이 안나고 하영튼 경찰측의 이러한 행동이 너무나 이상했고 본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공포심이 점점 더해갔다.

문국진이 담당경사 김낙현에게 이런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수사는 싫다고 거세게 항의하자 경찰들 놀람.

이후 3일만에 취조실에서 면회를 했는데 부모가 사간 통담을 보고는 "나를 통담같이 고문시키려고

사 왔느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슨 말을 해냈는데, 현재 부모가 연로하여 잘 기억하지 못함. 청량리 대공과 내에는 조그만 방 2개가 있었는데 1개는 숙직실이었고 1개는 취조실이었다.

일주일쯤 후에 청량리 유치장 독방에 수감됨

부모님이 날씨가 추워(11월말경) 내복을 반입했으나 본인은 입지 않고 있어 형사에게 물어보니 형사가 읽어버렸다고 함, 그래서 나중에 헌 내복을 다시 가져갔음.

부모님이 면회할 때 몸을 자꾸 꼬고 헛소리 했음.

아무런 증세가 심하진 않았으나 이상했음.

문국진은 청량 유치장에서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는 경찰, 전경들을 감시했음('이놈은 괜찮은 놈, 저놈은 안 좋은 놈'하며, '혁명이 되면 조 놈은 어떤 직책에 앉혀야겠다는 생각들을 함': 정신분열증 증상이 이런 것임). 이런 모습을 본 경찰들이 "이 새끼 일부러 미친 척한다"며 또 다시 구둑발로 참.

보름쯤 후 경희대 병원에 의뢰하려 감

그 상태로 보름쯤 있다가 과장의 지시로 경희대 병원에 김낙현과 함께 갔었음. 의사는 문국진을 발가벗긴 채 침대 위에 누이고 눈알을 뒤집어보고 성기를 몇차례 움직여본 후 별 이상 없다며 다시 경찰서로 보냄.

이때 문국진은 경찰과 의사가 자신의 눈알을 빼고 사지와 성기를 자른 후 전향을 요구하면서 어느 이름모를 매립지에 버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힘으로 자신의 욕신을 토막내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결코 전향은 할 수 없다는 생각만을 하면서 무저항 상태로 있었다고 함. 이런 광경을 지켜보던 김낙현이 눈물을 글썽이더니 뒤돌아 서서 울었음.

이때 부모에게 경찰들은 문국진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다왔다고 했으며 집안에 정신질환자가 있었느냐고 물음.

그후 부모가 "지수한 사람을 왜 이렇게 오래 끄느냐, 내보내든지 해야하지 않느냐"고 따지자 어떤 형사가 "건국대 일(10.28)이 터져서 마루어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문국진이 운이 나쁘다고 함(문국진이 지수한 후 10일쯤 후부터 건대 학생들이 청량리경찰서에 3,4명씩 계속 구속되어 들어옴).

유치장 생활 최종 5일간(~11.22) 사복을 입고 있었음.

한달 동안 경찰들과 함께 지낸 후 독방 유치장으로 옮겨짐. 독방 유치장 생활은 5일 정도였음. 이때까지도 조금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했을 뿐 극단적인 행동은 없었음.

성동구치소 (11.22 ~ 12.12: 20일 동안의 생활)

성동구치소 독방생활. 죄수복 입었음. 이때부터 발작이 급격하게 났음.

성동구치소로 옮긴 후에는 죄수복을 입었으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발작을 함. 창살 부수고 자신이 누운 동을 펴서 창문을 통해 복도에 쏟아버리면서 난동피자 여러 사람 있는 방으로 옮겼으나, 이불에다 주전자물을 쏟아붓고 밤마다 '민주방송'을 해대니까 전경 4명이 군화발로 마구 찼으며 성동구치소 내의 '정신병동'으로 보냈음.

성동구치소 내 정신병원(10일 정도)

이곳에서 10일 넘게 있었는데 간수 1명이 군화발로 계속 때림. 독방에다 가두고 몸을 공공 묶어놓고 칸막이로 부모님 면회할 때마다 3,4명의 경찰이 붙잡고 서 있었음.

성동구치소 내 징벌방(4일 정도)

그후 징벌방(1평도 안되는 독방)에 끌려가 공공 손발 묶이고 온몸도 공공 묶인 채로 얼굴에 시커먼 수건을 뒤집어 씌었음.

문국진은 그 상태로 4일을 조그리고 간혀서 누어 있었으며 계속 울었음.

다시 성동구치소 내의 독방

그 후로 다시 독방에 갔음.

성동구치소 과장이 부모에게 문국진이 거울을 켜다는 이야길 전화로 했고, 그날 저녁에 곧바로 면회갔는데(부모, 형 3인) 문국진이 발가벗고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부모 앞에 성기를 내보이고 소리소리 지름.

부모가 계속해서 북부 공안과 검사에게 문국진을 정신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고 구치소 최고 간부에게 병원에 빨리 보내달라고 했지만 "알았다"고만 함.

이후 김상철 인권위원회 변호사 회장에게 감.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전화를 걸자 검사는 움추러들며 부모에게 다시는 인권위에 연락하지 말라고 함.

결국 인권위 변호사가 검사에게 몇 번 전화한 뒤 경찰관 입회하에 부모님, 담당형사 김낙현, 문국진이 경찰차로 12.12일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감. 이때 문국진은 계속 소리를 지름.

중곡동 국립 정신병원 입원(1986.12.12~1987.2.28)

검사위하에 있었던 기간임

중곡동 정신병원 기간도 검사 위하에 있었던 기간으로 검사가 병원에 의뢰해서 관비로 치료받았던 기간임. 그의 청량리경찰서에 있었던 잡범 1명도 같이 중곡동 국립병원에 동일한 상태로 치료받고 있었음.

병원 치료받고 퇴원할때 검사 지시받은 경찰 2명이 병원에 와서 신병인수증을 병원측에 써주었고, 부모는 북부 검사가 요구하는 각서(이 문제를 가지고 말썽 일으키지 않겠다, 이의를 달지 않겠다)를 쓴 후 문국진은 퇴원되었다. 그후 기소유예시킨듯 함.

김낙현은 1993년 8월 중순경 암으로 죽었고 수배기간 때 담당형사 김수일은 현재시경에 근무하고 있음.

[> 2/28/12/86
> 가주성동구치소]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사업계획

1. 모임의 구성

가) 명칭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

나) 구성일 - 11월 13일(수) 오전 11시, 향린교회 1층

다) 모임 체계

- 대표 : 박정기(고 박종철열사 부친)
- 부대표 : 인재근, 서준식, 최의팔
- 총무 : 박래군
- 회계 : 각진선
- 기록과 연대 민주동문회 연락 담당 : 전포혁

라) 사업 ① 문국진의 사회 복귀를 위해 노력

- ② 문국진 사건 소송의 승리를 위한 지원 사업
- ③ 문국진의 치료와 가족의 생활 보조 사업
- ④ 고문피해자와 후유증에 대한 조사사업
- ⑤ 고문신고상담의 운영
- ⑥ 고문(후유증 포함)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고문의 근절과 후유증의 치료를 위해 노력
- ⑦ 회보, 자료집 발간등의 홍보사업
- ⑧ 기타

마) 실무역량의 확보 - 상근자 1인과 반상근 책임부서장 5인 정도

이런 사업은...
 친구...
 "Friend" (친구...)
 "7P-80%"
 Tutor
 "5/23" : 2/28-2/28/86
 "3/28" : 약한 인본
 "2/28/86"

2. 사업일정과 계획

(1) 국내의 사업

1) 소송 제기에 맞춘 소규모 집회

- 가) (가칭) 대책위 발족식 및 문국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
- 나) 일시: 1993년 11월 13일(수) 오전 11시-12시
- 다) 장소: 향린교회

2) 소송의 제기: 10월 13일 오후 대책위 관계자와 백승헌 변호사

3) 국회청원: 10월 18일 청원마감 시일을 맞춰서 약 100명 정도의 유명인사의 서명과 약 10인의 국회의원의 소개서를 받아 청원토록 함

4) 공연: 11월 27일, 연대 대강당에서 김광석, 안치환, 정태춘, 등 가수 초청공연

5) 고문후유증 사례발표회: 11월 말이나 12월초

(2) 해외 관련 사업

1) 두가지 해외연대사업

- 가) 캠페인-군사정권하의 고문 후유증에 대해 현 정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각 단체가 정부에 촉구하고 항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

* AI, SOS TORTURE 등

- 나) 재정- 치료, 소송 지원, 생활비등의 도움을 조직하는 사업

* AI, 유엔인권센터 고문 희생자를 위한 자발적인 모임, EC 고문반대위원회,

RCT, 영국 Medical Foundation for Victim of Torture 등

- 다) 사건 자료들을 영역중이며, 10월 16일까지 해외 발송 완료

- 라) 책임자 인권운동사랑방(서준식)

- 문국진의 아내 윤연옥의 글 -

고문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해인이 아빠

저의 남편은 교도소와 정신병원을 오가며 청춘을 보낸 사람입니다. 이제 이 사회가 민주화를 위해 고통당한 자들의 아픔을 꺼안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앞으로도 극에서 극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드립니다.

저의 남편은 1979년 연세대학교 철학과에 입학, 1987년 복학, 1988년 졸업한 사람으로, 학생운동과 사회운동을 하다가 받은 고문 때문에 정신분열을 앓고 있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정생활비는 제가 출판사를 다니며 벌고 있으며, 저희는 4살된 딸아이와 함께 전셋방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1993년 6월 26일(토)자로 고려대학교 부속병원 구로동 지점 정신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하기 1주일 전부터 남편은 이틀동안 잠을 자지 못했고 집안에 도청이 되었다는 의심을 하는 등 정신이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6월 26일 낮2시경 주인집 손녀딸(6세)이 우리집 아이와 놀기 위해 놀러왔는데 남편은 "너 왜 인형 가지고 갔어. 도둑질하면 나쁜거야. 빨리 갖다 놔"하며 큰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소 말이 없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안하는 남편이었으므로 저는 놀라 뛰어나와 그 아이를 얼른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 화가 난 아이 엄마가 올라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샷대질이 오가면서 흥분한 남편은 장난감 차에 꽂혀 있던 쇠파이프를 빼들고 베란다 벽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주인집에 가서 남편에게 정신질환이 있으니 우선 참아달라며 일을 수습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엄마가 신고하라고 소리치자 남편은 흥분이 극에 달해 "나도 신고하겠다"며 유리창을 깨부수었고 손에 상처를 입어 피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남의 집 안방으로 피신을 했고, 잠시 후 신이문 파출소 경찰들이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남편은 경찰을 보자 더욱 날뛰었고 경찰차 밑으로 몸을 깔면서 "나를 데려갈 테면 데리고 가보라"며 온몸을 비틀었습니다. 동네사람들이 다 나와 젊은 사람이 안됐다는 듯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고, 연로하신 시부모님들은 다만 우시기만 하셨습니다.

결국 남편은 몸이 노끈으로 뭉뚱 묶인 채 경희의료원으로 실려가 손을 치료받은 뒤 고대부속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딸아이가 잘 안가지고 놀기에 제가 버린 인형을 주인집에서 주워 손녀딸 방에 걸어둔 것이었는데, 남편은 주인집 꼬마가 인형을 훔쳐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이 약하므로 작은 일에도 보통사람보다 몇배의 스트레스를 받는데, 거기에 자극이 가해지자 발작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희 남편은 연대 철학과 2학년 재학중인 1980년 봄에 학교 도서관에서 빌린 책이 이적서적물이란 증거물로 채택되어 반공법으로 서대문서에 구속되어 모진 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뒤 1986년 3월 25일 보임 '다산 조직사건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되면서 그해 초겨울 부모님과 함께 자수해 청량리경찰서에 다시 구속되었습니다. 구속 직후 남편은 자기가 눈 오줌을 먹고, 발가벗은 채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며 광란하는 등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으나, 형사들은 일부러 미친 척 한다며 독방에 가두고 발병할 때마다 구둑발로 은몸을 멍이 들 정도로 찼습니다. 중간에 경찰관 입회하에 국립정신병원에 간 적도 있으나 의사는 남편을 발가벗기고 침대에 누인채 성기를 몇번 흔들어보고는 아무 이상 없다며 다시 청량리경찰서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 즈음 건국대 방화농성사건(1986. 10. 30일경)이 터져 경찰서가 바빠지면서 남편은 1달 반 동안이나 그 상태로 경찰서에서 방치되다가 결국 증폭동 국립 정신병원에 관비로 입원되었습니다. 그 당시 의사는 남편이 "숨어서 지내느라 병이 든 것 같다. 머리가 튀어나고 심성이 부드러워, 사회에 단단히 한몫 할 사람이었는데 안됐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후 현재까지 6차례 재발이 되어 거의 한해에 한번씩 입원을 했는데, 한번 입원을 하면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정도가 지나야 집에 돌아옵니다. 남편은 입원할 때마다 "누가 나를 미행한다. 집안에 도청이 돼있다. 안기부에서 나오지 않았느냐"며 공포와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1990년 10월경에 입원할 때도 "안기부에서 나와서 너를 강간하지 않았느냐. 나의 행동을 일일이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건강이 좋아지면 다시 직장에 나갔습니다. 맞벌이부부가 보통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피곤해 할 때면 "물고문과 전기고문(90년 입원 때 전기치료를 받은 것을 두고 하는 말임)을 안 당해도 되니 그래도 살만하지 않느냐"면서 자신과 저를 위로했습니다. 정신분열증에 걸리기 전 남편은 말수는 적었지만 사려 깊고 유머도 있는 건강한 청년이었습니다.

남편의 나이 이제 34세, 엄마 아빠의 숙정을 느껴가며 한창 예쁜 짓을 하는 천진한 딸이와 절망하기에도 지친 아내를 두고 그는 다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면회간 저를 보며 남편은 "몸이 피곤해서 어찌느냐"면서 뺨한 눈으로 읊니다.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잠자는 애를 껴안고 남편 몰래 운 적도 많습니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 않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다른 가정을 부러워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내 남편의 고통을 함께 껴안고 겪어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한 인간이 파괴되어 가는 모습을 더이상 주저앉아 지켜보지 못하겠습니다. 주인집에서는 방을 빼달라고 하고, 어떤 아이 엄마는 우리 딸아 이와 노는 자기 애를 데려가기도 합니다. 한 가정이 무참히 짓밟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1980년대 살얼음판 같던 제5공화국 시절 소위 '운동권' 사람들에게 자행되었던 무자비한 투옥,

고문의 현장 속에서 한 인간이 이렇게 파괴되었음을 세상에 알립니다. 한 인간의 인간성을 파괴시킨 잔혹한 고문, 고문의 두려움으로 정신분열을 일으킨 사람을 미친 척 한다며 그대로 방치한 살인적인 행위는 이제 그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화합을 이루려는 문민정부라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껴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몸짓들이 모여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사회는 극에서 극이 아닌 국민대화합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만 줄입니다.

- 입원하기 3일 전(1993.6.23) 문국진씨가 아내에게 쓴 편지 -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속의 고독', '절대적인 실존을 나날이 체험하는 세월들' 그리고 '가장 믿었던 나무에 대해 강제로 교묘히 심어지는 불신!'

해! 암울했던 어둠을 불사르고 또다시, 그리고 어김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鐵의 영원함과 같이 느껴지던 그 암흑의 시간, 그것은 동터오르는 노동자의 또 다른 힘찬 출발과도 같이 해처럼, 드디어 밝아오르는 해처럼 우리의 암울·참담·처절(!) 그리고 절대적 고독을 물리치고 이제 또다시 떠오릅니다.

동지!
나의 숙명과도 같은 동지여! 이렇게 처음 불러봅니다. 이제 당신은, 000라는 虛像을 쫓지 말고 마침내 몸을 일으켜 세운 곱추의 일어섬 같은 인간 문국진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겠지만 '고뇌하는 예수', 산장에서 밤세워 피땀흘리며 하느님께 "주여! 하옵시면 이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에 원하며 매달리며 십자가의 고난·고통·창피·수치스러움을 회피하기를 원했던 '인간의 아들 예수!' 와도 같이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미물이올 따름입니다. 개인은 한없이, 한량없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소중한 것들! 부디 당신은 고통을, 인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스스로 온 몸으로 깊이 체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 문국진이라는 처절한 인간의 고뇌와 육체적, 전(全)존재적 고통속에 동참해온 것이 사실이지요. 이를 잊어버린다면 나는 개(犬)와 같은 존재일 것이요. 인간(男)과 인간(女)이 만나서, 여기까지 살아왔소.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신과 나의 이 순조롭지 못한 세월들!

우리는 무한히,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스스로를 훈련·단련·강화·발전·성숙시켜야 하오. 발전없는 삶은 퇴보일 뿐이오. 직장생활! --- 할 말이 없소. 그러나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하오. 그것을 확보해야 하오.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삶의 여유의 시간을! 박노해의 시에 자본주의적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남녀의 고통, 노동자의 사색의 박탈을 그린 시가 있소. 우리는 자기 시간을 확보해야 하오. 왜냐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는 고통은 개개인의 몫이 되므로.

우리를 괴롭히는 온갖 괴로움들, 미발달한 우리의 운동, 나약한 육체, 이 사회가, 이 생존이 강제하는 하루하루의 어김없는 삶의 굴레, (당신은 누구 못지않게 지금까지, 힘들고 벅차고 무거운 역사의 굴레를 온몸으로 버텨온 존재임을 항상 잊

지마오). 아 우리의 생명,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살아있다는 것 만으로도, 물고문으로 숨직한 순간 또는 전기가 생체를 관통하여 의식을 잃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또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기쁘구려. 당신은 아직도 이 동터오는 새벽의 시대에 암울 속에 갇혀 있는가요?

드디어 새벽 5시. 주홍색빛 태양이 옥상위 주택가 지붕 너머로 제 모습을 드러냈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소, 당신의 암·울·함·앞·에·서.

고통과 고뇌 그 한가운데 있는 實存 앞에서 그 누가 무슨 말, 무슨 위로의 말을 하리오. 그러나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서로 더욱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간다는 것. 지금 나는 책 ①마르크스 사상, ②진정한 인간. 진정한 인간 공동체, ③社會世態에 관한 에세이 =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인간 본성에 반하는 그 모든 잘못, ④참된 인간像, 인간관계, (= 同志愛), 우리의 이상의 구현태로서의 사회상 등 글로 표현해야만 할 것들이 많소. 물론 나 자신 아직 스스로 다듬어지지 않은 (당신 말대로) 유약한 '인텔리'임은 분명하오. 그렇지만 내가 믿는 믿음 한가지, 그것은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변화한다. 아니 변화할 것이다! 아니 변화, 스스로 변화시켜야만 한다는 것이오.

부디 내곁에 있어주오, 내곁에

- 부드러운 당신에게

1993. 6. 23. 水

- 의사 소견서 1 -

< 소견서 >

1. 인적 사항

성명 : 문국진

주민등록번호 : 600316-1036211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동 226-19

2. 진단명 :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

Diagnosis : Psychogenic paranoid psychosis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기호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9-th. -> ICD-9) : 298.4.

3. 소견

문국진씨의 경우 미국정신의학회의 분류기준(DSM-III-R)에 따르면, 다른 만족스러운 항목이 없어서 정신분열증(schizophrenia)에 해당됨.

그러나 가족 병력, 병전 인격, 병후의 일상생활 기능을 보아서 썩 부합되는 것 같은 인상이 아님.

DSM-III-R이 ICD-9보다 최근에 개발되어 많은 정신과 의사가 사용하고 있으나, 병의 분류, 특히 정신분열증의 분류는 아직 모호한 면이 많고, 최종적인 것은 아님.

ICD-9의 Categories 298.0 ~ 298.8은 최근의 생활경험에 주로 혹은 전적으로 기인된 정신병적 조건을 가진 작은 군에 제한되어지는 병명으로서, 특히 298.3 급성편집증적 반응은 「어떤 정서적 스트레스에 명백히 유발된 편집증적 상태. 이 스트레스는 공격이나 위협으로 종종 오해된다. 그런 상태들은 특히 수감자에게서 일어나기 쉽다」고 한정되어 있고, 298.4. 심인성 편집증적 정신병은

298.3에 망리된 급성 반응보다 더욱 지속되는 어느 형태의 심인성 혹은 반응성 편집증적 정신병,」으로 정의됨.

문국진씨의 경우 1980년 및 1986년 두 차례에 걸쳐서, 심한 비인도적 고문을 당한 경험이 있어서 위 진단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됨.

덴마크의학회에서 1980년 11월 고문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상자 135명 중 101명(74.8%)에게서 한 가지 이상의 정신의학적 이상 증상이 나온다는 보고를 감안할 때; 또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불안,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정신분열증양(schizophrenia-like) 증상이 있다는 보고 등을 감안할 때; 고문 후유증으로서, 혹은 고문에 의한 반응성(심인성)편집증적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제출함.

— 1993년 9월 13일.

의사면허 : 18571

신경과·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배기영.

동교신경정신과의원 (333-3572)

진단서 발급 의뢰에 대한 답신

수신 : 변호사 백승현

발신 :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인과

인적 사항 :

성 명 : 문국진

성 별 : 남자

생년 월일 : 1960년 3월 16일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 3동 226 - 19호

진 단 명 : 정신분열증

현재 증상 : 안기부 요원에게 미행당하고 있으며 집안에 도청장치가 되어 자신을 감시한다고 생각하는 피해사고, 막스나 레닌에 버금가는 위대한 혁명 사상가가 됐다는 과대망상, 고문에 못이겨 동료들을 배신했다는 죄책감, 수면장애, 초조함과 불안에 따른 과민성, 충동 조절 장애 등을 주소로 1990년 11월 12일부터 1991년 2월 9일까지 입원, 1993년 6월 26일부터 현재까지 본원 신경정신과 입원 치료중.

발병 원인 : 현재까지 연구된 정신분열증의 원인으로는 크게 생물학적 원인, 심리학적-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는데, 생물학적 원인으로는 다시 유전성, 생화학적-생리학적 요인(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대뇌 균형의 이상), 등을 들 수 있으며, 심리학적-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학적 요인, 모자(母子)관계의 결함, 가족간 상호관계와 의사

소통의 장애 그리고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환자의 발병은 1986년 12월 첫 입원 당시 수사과정중 증상이 발생하여 국립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작한 것과 현재까지의 치료경과로 보아 심리적 고통이 상당 부분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1993년 9월 9일

의사면허 : 15580

고려대학 의과대학 구로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정 인 과

수사기관 (고문)피해 사례

전희식(35)

전희식씨는 사건당시 민중당 인천 북갑지구당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전희식씨는 1992년 9월 4일(금요일) 오후 4시경 서울 서초동 윤종현 변호사 사무실 앞 인도에서 '조선노동당사건'에 관계된 인물로 지목되어 안기부 직원인 백길호 외 성명미상의 3인 등 4인에 의해 신분증 제시를 물론 영장제시나 구인장의 제시도 없이 불법적으로 강제연행된 뒤, 그때부터 9월 6일(일요일)까지 꼬박 49시간 동안 동 장소에 감금되어 강제 구금을 당했다.

국가안전기획부 지하 취조실에서 김낙중씨 사건 참고인으로 취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입고 있던 옷이 벗겨지고 군복으로 갈아입혀져 근 1시간에 걸쳐 집단폭행을 당했다.

안기부원들은 전희식씨의 머리를 뒤로 젖혀서 목줄대와 복부를 당수로 가격하고 목덜미를 장작대듯이 내리쳤으며 머리를 벽에 짚이기로 팔을 당겨 뻗게한 후 팔목을 주먹으로 치고 또한 머리를 벽에 밀어붙여 놓은 채 자기머리로 박치기를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닥에 쓰러진 고소인의 허벅지와 등쪽을 구두발로 내리쳐고, 머리채를 움켜쥐고 몸을 이리저리 뒤체면서 방 모퉁이에 몸을 쳐박아 놓고 짓밟았습니다.

안기부원들은 전희식씨를 집단폭행하거나 불법감금하면서 '억울하면 법대로 고소하던지 니 마음대로 하라고 냉소하면서 불법적인 행위를 전혀 개의치 않았고 멈추려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고문으로 인해 전희식씨는 하루동안 피가래를 토하였으며 1992년 9월 5일 오전에는 안기부 자체의 표진으로 보이는 의사 2명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목이 심하게 다쳤다는 진단과 함께 3일분의 약을 지급받아 복용한 바 있다. 전희식씨는 고문으로 전치 3주의 진단을 요하는 상처를 입었다.

- 취조이:
- 이문:
- 김보영 : 86 평택연맹 부기, 가기 가기
84. 02. 14

故 최동

89. 6

이연

지난 90년 8월 7일 한양대에서 분신자살한 최동씨는 80년 성균관대 국문과에 입학한 후 10여년간을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을 통해 반독재투쟁과 노동해방을 위해 헌신했다. 그는 부천지역에서 노동운동을 하고 있던중 89년 1월부터 그가 소속해 활동하고 있던 '인천, 부천노동자회'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연행되었다. 조사를 받는 동안 그는 그의 한달반 동안의 행적에 대한 세세한 사진기록에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동료들은 전했으며 20여일동안 잠을 거의 재우지 않는 조사를 받는 중 서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칫솔대를 날카롭게 갈아 자해를 시도하여 기도가 1cm 이상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으나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고 조사를 강행당했다. 이때 그의 수면기능은 완전히 파괴되고, 심한 우울증과 피해망상증세가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치소로 넘어간 뒤에도 그에 대한 치료는 형식적인 데에 그치고 불면증 등 정신적인 고통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외상치료조차도 기껏 반창고를 붙여주는데 그쳤더니 독재정권의 횡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물론이요, 그가 뒷날 정신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여러달을 방치하다가 종로신경정신과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결과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세로 구치소 밖에서의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판정을 겨우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최동씨가 수사관들에게 어떤 형태로 고문을 받았는지는 그 자신과 담당수사관 밖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최동씨가 고문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정신분열증세를 보이고 그로 인한 고통을 참지 못하여 생명을 던지게 만든 것이 군사독재정권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자해, 반장, 뇌상, 뇌하수체, 뇌하수체, 뇌하수체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 -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 -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

암울한 어둠 사르고 또 다시 헤쳐림 떠오를 사람

- 고문으로 몸과 마음을 다친 문국진씨 -

“살아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물고문으로 숨기쁜 순간 전기가 생체를 관통하여 의식을 잃는 그 무시무시한 고통을 또 다시 겪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한가지 사실만으로도, 기쁜 사람이 있다. 그러나 이렇듯 욕심이 없어 행복한 사람 문국진씨는 지금 ‘정신분열증, 피해망상증, 인간관계망상증, 편집증’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해 있다. 암울했던 80년대. 야수같은 군사정권은 지금 그 꼬리를 감추었지만 그때 그들의 발톱에 몸과 마음을 찢긴 문국진씨는 깊은 상처를 입고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곳에서 쓰러져 신음하고 있다.

필자가 문국진씨의 ‘숙명적인 동지’이자 아내인 윤연옥씨를 만난 것은 8월의 햇살이 뜨겁게 비치는 어느날 정오였다. 화장기 없는 검고 아연 얼굴은 매우 지쳐 보였지만 뒤로 질끈 동여맨 머리는 무슨 오기갈기도 하고 신념갈기도 한 어떤 것을 느끼게 했다. 엄마 손 끝에 매달려 따라온 4살박이 딸 해인은 무슨 말인가를 끝없이 재잘거렸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는데 우울한 엄마의 즐거운 말동무가 되어주었으면 싶었다.

윤연옥씨는 자료를 보여주며 조용한 음성으로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었다. 문국진씨기 처음 구속된 것은 1980년 그가 연세대 철학과 2학년 재학중인 때였다. 당시 그는 사회과학에 관련된 책자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공법’으로 구속되었다. 그는 서대문서에 끌려간 후 서대문서 뒷골목 치안본부 대공과에서 3일간 아무런 질문도 받지 못한 채 발가벗기고 가마니에 들들말려 심하게 매를 맞았다. 하루종일 매를 맞고 감방으로 돌아가면주위 사람들이 안마를 해주었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또 고문의 공포에 휩싸인 채 골방으로 끌려가 매를 맞았다.

그 다음의 고문은 물고문이었다. 입을 수건으로 가리고 대형 주전자에 물을 채워 계속 코에 들어붓는 고문이다. 이유는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대라는 것이었다. 이런 고문을 받은 후 1년 형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3개월만에 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구속 사건이 있은 뒤 문국진씨는 술을 마신뒤면 주사가 심했고 심지어 옆사람을 마구 꼬집기까지 했다. 그러나 별다른 큰 후유증 없이 문국진씨의 건강한 젊음은 쓰러진 고문의 기억을 이겨내었고, 83년부터 85년까지는 도서출판 화다에서 편집장까지 지내면서 열심히 살았다.

그러던 중 86년 3월 노동운동과 관련된 ‘보임 다산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게 되어 몇 개월을 쫓기는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쫓기는 생활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부모와 함께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하였다. 잠을 안 재우고 계속 조사를 한 3일 후 경찰서에서는 “사람이 이상하니 와서 보라”는 연락을 하였고 부모님들이 달려갔다. 그러나 먹으라고 사간 통닭을 보고 문국진씨는 “나를 통닭같이 고문시키려고 왔느냐”고 하며 고르고레 소리를 질렀다. 며칠 후 부모님들이 다시 면회를 갔는데 그때는 온 몸에 푸른 멍이 든 채 발가벗고 나오면서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고 소리치고 발버둥쳤다. 이때 부모님들은 도저히 눈뜨고는 지켜볼 수 없어 그저 영영 울기만했다. 그후 문국진씨는 자신이 눈 오줌을 먹고 모택동, 레닌이 되어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며 경찰, 전경을 감시하는 등 정신분열 증상을 보였지만 이 모습을 본 경찰들은 “이 새끼 일부러 미친척한다”며 더욱 더 세차게 구두발로 차곤 했다. 중간에 경찰관 임회하에 국립정신병원에 기본적이 있지만 의사는 문국진씨를 발가벗기고 눕힌 후 성기를 몇 번 흔들어보고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돌려보냈다. 그 즈음 건국대 방화농성사건(1986년 10월 30일경)이 터져 경찰서가 바빠지자 문국진씨는 한달반 가량 방치되다가 그 후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한 사람의 인권이 이처럼 무지막지하게 짓밟히고 있을 때 나타난 사람은 윤연옥씨였다. ‘보임 다산 사건’당시 함께 노동운동에 관한 학습을 하면서 알게 된 윤연옥씨는 문국진씨의 고통에 인간적인 동정으로 함께 울었다. 많은 고민을 하였지만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리라고 결심하고 윤연옥씨는 그와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앞날에 대한 꿈을 설계하며 이룩한 사랑과 평화로움을 맛보며 살아갔다. 문국진씨는 투병중에도 운동에 대한 의지를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집필활동도 하였다. 89년 3월에는 『반제반파쇼운동론』을 저술했고, 책으로 나오지는 못했지만 『시가 있는 아포리즘』 출간을 준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성실하고 건강한 삶에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문의 후유증은 무섭고 깊게 그의 영혼을 습격해 들어갔다. 문국진씨는 지금까지 6차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꼴로 난폭해지면서 발병을 했고 한 번 발병할 때마다 3-6개월간 입원, 그때마다 고문당하던 시점으로 돌아가 ‘내 행동을 안기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 안기부에서 사람들이 오지 않았느냐, 도청이 돼 있을 테니 전화는 밖에서 하라’는 등 극히 불안해 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그의 아내까지 의심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목까지 조르려고 하였다.

문국진씨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는 어렸을 때 서대문에 있는 충정교회를 다니면서 학생회장을 하기도 했고, 대학에 들어간 뒤로는 민중교회(신명교회와 동대문에 있는 청암교회)를 다니며 나름대로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꿈꾸던 신실한 신자였다. 그는 중곡동 국립정신병원의 담당의사의 밑에 의하면 “아이큐 130이 넘는 우수한 두뇌와 가성이 풍부하고 여성적인 부드러운 심성을 가졌으며 또한 필력이 뛰어나 사회에서 한몫을 단단히 할 사람”이었다. 또 그는 부인의 말처럼 “말수는 적지만

유머가 있고 사려깊은" 건강한 청년이었다. 그는 사회의 부패한 곳을 볼 줄 아는 예민한 감수성의 소유자였고 어둡고 소외된 곳을 찾을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였으며 몽상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할 줄 아는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름다움은 처참히 짓밟히고 찢겨 그는 힘이 없이 신음만 토하고 있다.

문국진씨는 최근 입원하기 3일전(1993. 6. 23)에 그의 아내에게 눈물겨운 편지를 썼다.

"...헤! 암울했던 어둠을 불사르고 또다시, 그리고 어김없이 해는 떠오릅니다. 철(鐵)의 영원하고 같이 느껴지던 그 암흑의 시간, 그것은 동터오르는 노동자의 또 다른 힘찬 출발과도 같이 헤쳐 럼, 드디어 밝아오르는 헤쳐 럼 우리의 암울, 참담, 처절(!) 그리고 절대적 고독을 물리치고 이제 또 다시 떠오릅니다.

동지!

나의 숙명과도 같은 동지여! 이렇게 처음 불러봅니다. 이제 당신은 000이라는 허상을 좇지 말고 마침내 몸을 일으켜 세운 곱추의 일어섬 같은 인간 문국진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고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겠지만 '고뇌하는 예수', 산장에서 밤새워 피땀흘리며 "주여!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둬주십시오!" 애원하며 매달리며 십자가의 고난, 고통, 창피, 수치스러움을 회피하기를 원했던 '인간의 아들 예수'와도 같이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미물이을 따릅니다.

개인은 한없이 연약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소중한 것들! 부디 당신은 고통을, 인간 모든 중생들의 고통을 스스로 온 몸으로 체득하길 바랍니다.

당신은 나 문국진이라는 인간의 고뇌와 육체적, 전(全)존재적 고통 속에 동참해 온 것이 사실이지요. 이를 잊어버리면 나는 개(犬)와 같은 존재일 것이요, 인간(男)과 인간(女)이 만나서...여기까지 살아왔고,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당신과 나의 이 순조롭지 못한 세월들!

우리는 생명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스스로를 훈련, 단련, 강화, 발전, 성숙시켜야 하오. 발전 없는 삶은 퇴보일 뿐이요 직장생활! 할 말이 없소. 그러나 우리는 여유를 가져야 하오.

.....(중략)

드디어 새벽 5시, 주홍색빛 태양이 옥상 위 주택가 지붕 너머로 제 모습을 드러냈소. 나는 아무 할 말이 없소. 당신의 암·울·앞·에·서·....."

얼마나 진실하고 처절한 삶의 의지이며 몸부림인가! 윤연옥씨는 이 진실을 결코 외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녀는 자꾸만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자신의 몸을 추스려 출판사에 다니며 생활비를 벌고, 남편의 병간호를 정성스럽게 하며 딸 해인의 좋은 엄마가 되려고 있는 힘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그녀는 큰소리로 고발을 한다. 제5공화국 시절 소위 '운동권' 사람들에게 자행됐던 무자비한 투옥, 고문,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성 파괴를...

오늘의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문민정부라면 이 외침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할 것이다.

— 『고난받는이들과 함께』 제35호 1993년 9/10에서

- 관련 보도기사 2 -

고문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작은 움직임

아직도 고문피해는 끝나지 않았다

신보연/본지기자

지난 8월 23일 김근태씨 고문경관들이 법정구속되었고 그 이전인 8월 7일에는 김근태씨에 대해 국가각 4천 5백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간 소위 '3대고문사태'로 일컬어지던 사건 중 권인숙씨, 고 박종철 군 고문사건의 종결에 이어 김근태씨 사건마저 종결됨으로써 이제 고문피해 문제는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고문피해 문제의 해결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간 언론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하고 계속되는 고문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속속 피해자 처벌과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나이 만33세인 문국진씨는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네살막이 딸과 아내가 있는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있지 못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 문국진씨는 대학 2학년 때인 80년 반공법위반으로 구속되어 치안본부 수사관들에게 1개월 동안 고문을 받았다. 그는 86년에도 소위 '보임다산사건'으로 수배를 받다 지수를 했는데 이때 3일 동안 고문을 받으면서 정신질환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여섯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다.

그는 "당신이 내 일거수 일투족을 안기부에 보고하고 있다"며 이혼을 요구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려고 누워 있는 부인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 이런 상태에서 오랜 세월 시달리다보니 가족들도 지치게 된다. 문국진씨의 부인은 이렇게 얘기한다. "세월이 흐를수록... 저의 답답했던 심경은 생활과 거둬되는 남편의 입원으로 절망감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받았던 고문이 아직도 그의 몸과 영혼뿐만 아니라 단란해야 할 가정까지 갈갈이 찢어놓고 있는 것이다.

90년 '인노회 사건'으로 구속되었다 풀려난 지 10개월여만에 분신자살한 고 최동씨와 그 가족의 경우는 더

욕 심하다. 구속 후 조사과정에서 잠 안재우기 등 정신적 고문을 받았던 그는 발작과 실어증, 극도의 무기력 증 등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분신자살하고 말았다. 그의 죽음 이후 부친도 사람 만나는 것이 싫다며 그동안 운영해오던 동대문시장의 가게도 정리하고 바깥 출입을 않고 자내다가 최동씨의 사십구일제를 지낸 지 몇세만에 햇병으로 숨졌다.

군사정권 하에서 소위 '운동권'이라 불리던 사람치고 간단한 고문이나마 안 당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운동권'이 아니라 하더라도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에 끌려들어가게 되면 모욕과 구타는 기본적이고 심한 경우 온갖 악랄한 고문까지 연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심한 고문을 당했던 사람들은 거의 예외없이 "이지도 날이 굶으면 온몸이 쭈시고, 우울증과 피해의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지속되는 고문피해에 시달리고 있던 문국진씨는 지난 6월 13일 경희대에서 열린 '민주열사추모제'를 보고 나서 "죽느니만 못하게 살고 있는 내 가슴 웅어리를 풀어달라"며 통곡했다. 이 모습을 보며 부인 윤연옥씨는 "이제 사랑이라는 말을 쓰기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기에도 지친 삶이지만 다시 몸을 추스리고 살아나갈 것"을 결심하고 평소 문국진씨를 걱정하고 도움을 주어왔던 연대 동문들과 주변의 친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그 후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가 결성됐다.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백승현 변호사와 함께 가해자 처벌과 배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김낙중씨 간첩단사건'으로 안기부에 끌려갔다가 집단 폭행을 당했던 전희식씨가 합류했고 최동씨 가족도 합류할 것인지를 논의 중이다. 문국진피해대책위원회에서는 이를 계기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이 더 많이 합류해 줄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은 이전과 약간 다르다.

"문국진고문피해대책위는 앞으로 법정투쟁을 지원하는 한편 '이땅에 더이상 고문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개혁을 추진하는 등 모든 활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이전 같았으면 데모나 농성 등이 주된 활동방식이었을 텐데 이제는 법에 호소하고 있다.

3대 고문피해사례에 대해 가해자 구속과 국가배상판결이 이루어지고 난 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언론의 주목도 별로 없고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하기 힘든 고문피해문제에 대해 정부와 시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도 미지수다. 문국진씨 부인 윤연옥씨 호소문 글구대로 "이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대화합을 이루려는 문민정부라면 개인의 몫으로 돌아간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겨안고 치유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문국진씨의 고문피해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보고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무수한 고문피해자와 가족들이 용기를 내어 법에 호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사례가 일일이 가려지는 과정이야말로 말로만 고문수사금지를 백번 외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 될 것이다. 부디 고문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이 작은 움직임이 성공하기를 빌어마지 않는다.

—— 월간사회평론 길 1993년 10월호에서

- 관련 보도기사 3 -

1993년 7월 20일자 한겨레 신문

"동네방네"

이까운 젊음을 구치소와 정신 병원에 '저당잡힌' 남편을 지켜보는 아내의 심정은 어떨까. 최근 온몸이 땀과 목이 채 또 한차례 정신병원으로 실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그냥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윤연옥(31)씨의 두 눈에는 이미 눈물마저 말라 있었다.

윤씨의 남편 문국진(33)씨가 정신병원을 드나든 것은 이번이 벌써 여섯번째. 문씨가 이런 '고통의 사슬'에 묶어매이게 된 것은 신군부통치의 막이 오르던 지난 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연세대 철학과에 다니며 학생운동에 몸담고 있던 문씨는 도서관에서 빌린 책 때문에 이적 표현물을 갖고 있다는 혐의로 붙들려 치안본부(현 경찰청) 대공분실로 끌려갔다.

문씨는 이곳에서 꼬박 사흘 동안 두들겨 맞고 일주일 남짓 가혹한 고문을 당한 뒤 구치소로 넘겨져 3개월 뒤 풀려났다. 그뒤 조금씩 이상증세를 보이던 문씨가 정신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한 것은 86년 말부터였다. 이른바 '보임' '다산사건'으로 수배를 당하면서 80년에 당한 고문의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공포'가 되살아난 것이다. 문씨는 도피생활 1개월 남짓만에 병세 악화로 지수했으나 증세가 심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병원치료로 조금씩 회복되어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하다가도 곧 병이 재발해 입·퇴원을 반복해야 했다. 다시 입원할 때마다 회복기간이 점점 길어졌고 증세도 심해졌다. 이 때마다 그는 마치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처럼 '고문의 시점'으로 다시 돌아갔으며, 최근에는 "안기부 프락치"라며 부인 윤씨의 목을 조를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다.

그동안 부인 윤씨는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워' 어린 딸을 껴안고 소리없이 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 문씨의 '발작'이 심할 때는 너무 무서워 달아나기도 했으며, 집주인의 독촉으로 이삿짐을 싸는 일도 잦았다. "안락한 삶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인간이 철저히 파괴돼 가는 모습을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어요."

이젠 절망하기에도 지쳐버린 윤씨는 "군사정권 시절 무자비한 투옥과 고문 속에서 인간성이 파괴되어 버린 사람들의 고통을 겨안고 치유하지 못한다면 참다운 정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따금씩 돌아오는 남편의 맑은 눈동자를 안타까이 그릴 뿐이었다.

1993년 9월 19일자 한겨레 신문
‘고문피해’ 잇단 소송준비

김근태씨 고문 경관 법정구속과 박종철씨 가족 신원권 인정 등 최근 고문치해에 대한 사법부의 전향적 판결이 나오면서 5·6공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에 의해 고문을 당한 피해자와 가족들이 잇따라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 인권 단체에서는 수사기관의 인권 유린 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시국사범 뿐 아니라 일반사범까지 대상으로 하는 ‘고문피해자 고발 센터’를 만들어 손해배상 소송을 대항기로 하는 등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고문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문국진(33·연세대 79학번)씨 부인 윤연옥(30)씨는 다음 주안에 국가를 상대로 고문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윤씨는 이미 의사소견서와 증인진술 등 소송제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고 변호를 맡을 백승현 변호사와 법률검토까지 끝낸 상태이다. 윤씨는 지난 90년부터 문씨를 치료해온 서울 D신경정신과 배아무개 박사로부터 문씨의 정신질환이 정신병이라는 소견을 받아냈으며, 현재 문씨가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고대부속 구로병원에서도 ‘고문에 의해 발병 가능성이 높은 증상’이라는 진단서를 받았다.

윤씨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 80년 경찰에 구속돼 심한 고문을 당한 뒤 86년 10월 시국사건으로 또 다시 연행돼 2개월 동안 청량리경찰서와 성동구치소에 갇혀 있으면서 독방에서 온몸이 묶인 채 폭행을 당하는 등 고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 90년 8월 정신분열증을 앓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건물에서 투신자살한 최동(성균관대 국문4 제적)씨의 가족들은 최씨가 이미 숨진 만큼 신원권 인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89년 4월 ‘인천·부천노동자회’ 사건으로 구속돼 정신병을 얻었던 최씨는 자살 당시 “구치소에서 가해진 음모로 폐인이나 다름없게 됐다”는 유서를 남겼으며, 최씨의 부모는 “경찰에 연행되기 전까지 멀정하던 아들이 고문 후유증으로 자살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남한 조선 노동당 사건’과 관련해 연행됐다 풀려난 전희식(35·전 진보정당 추진위 인천북갑 위원장)씨도 “안기부에서 48시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해 3주 진단이 나왔다”며 소송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고문피해자 고발센터’를 열어 시국사범과 일반사범 고문 피해자들의 피해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고발자들을 중심으로 ‘고문피해자 모

임’을 구성하는 한편 이들을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대행해주기로 했다.

인권위 신승민(33) 간사는 “박종철·김근태씨 등 국히 소수의 사례를 빼고는 군사정권 시절 수사기관에 의해 광범위하게 자행된 고문과 가혹행위가 법정에서 심판받은 예가 거의 없다”며 “그동안 군사통치가 계속된 데다 피해자들이 막강한 수사기관과 맞서기에는 너무 나약한 개인에 지나지 않아 대응 움직임을 보이기 어려웠지만 민간 정부에서는 이런 인권유린 행위가 사라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고발센터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PC 통신에 들어온 격려 편지 -

발신인 : 나원택 (8763)

발신일시 : 07/28 00:50

제 목 : 해인이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입니다.

해인이 어머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텔 내의 통신 동호회원, 바른 통신을 위한 모임 제5기 회장을 맡고 있는 나원택이라고 합니다.

통신을 통해 사정을 들었습니다.

해인이 어머니도 아시는 한석이 형이 분노에 찬 전달 글이 우리 동호회의 운영진을 움직였고, 우리 운영진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변하지 못한 동호회는 달리 실질적인 힘을 줄 수 있기에 모자라며, 작으나마 우리의, 함께 분노하고, 어떻게든 힘이 되어드리고 싶은 마음들을 모아 해인이 어머니께, 그리고 아버님께 전하는 방법말고는 택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인한 폭력의 시대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권력 중앙에 있거나, 권력의 비호하에 뻔뻔스럽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폭력의 주범들은 여전히 민주와 개혁의 물결을 비웃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여전히 가소롭다는 비웃음을 흘리고 있다는 개운치 않은 현실들 앞에서, 그 분노가 단순한 앙심이 아님이 분명한 듯 합니다.

저는, 아직 세상의 물정을 일천하게 밖에 바라볼 줄 모르는 27살의 대학원생에 지나지 않지만, 해인이 어머님께서 겪으시는 기가막힌 사연과 같은 과거로 연유한 기막힌 아픔들 앞에서, 피해자에 대한 과감한 응징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철저한 집행, 그리고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될 이러한 폭력적 구조들을 원천적으로 봉쇄해낼 수 있는 탄탄한 사회제도의 개혁 등이 한시라도 바빠 이루어져야함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과 지혜를 바탕으로, 사회의 그러한 길로의 힘찬 발걸음에 미력하나마 열심히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해인과 해인이 어머니,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것이며, 그들은 모두 해인이 아버님의 쾌유와 해인의 밝은 웃음과, 해인이 어머니의 후련한 미소를 진심으로 바라며,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일들을 통해 견혀져 나가는 시대의 어둠들을 하나 하나 견어나가기 위해 성실히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해인이 아버님의 당찬 어깨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건강하시며, 용기를 잃지 마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바탕모 제5기 회장 나원택 드립니다.

발신인 : 이진수 (1212517)

발신일시 : 07/29 00:36

제 목 : 해인이 어머니께 드립니다.

발신인 : 문태준 (taejun)

발신일시 : 07/29 02:31

제 목 :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게시판에서 글을 읽고 이렇게 편지를 드립니다.

과거의 폭력적인 정권하에서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것들을 잃어갔습니다.

정말로 괴로운 일도 많으시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땅의 참된 민주화를 생각하는, 해인이네 덕처럼 고통을 입으신 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이땅이 진정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으로 되지 않는 한 이런 사람들은 계속 생길 것입니다. 참된 세상을 만들고 해인이네 가족이 행복해지는 그런 날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운대세요

!!!

착한 태준이가...

- 참고자료 -

고문피해자의 정신 병리학

이 글은 고문으로 인한 정신병적인 상태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있는 상황을 이해할 목적으로 고문상태를 정신병리학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 로렌스 하트만 박사

칠레 등 세계 여러 나라들의 실패에서처럼 고문 이후 후유증으로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 (DSM) 현상이 임상결과 여러 경로를 통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걱정, 근심, 외상에 대한 악몽, 반응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비, 기쁨에 대한 외형적인 표현의 불가, 과다경계증, 수면장애, 삶에 대한 죄의식 등이다. 고문 당한 사람 중에는 정신과나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고문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경우에는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의 상태로 나간다. 이러한 것들은 고통과 외상의 완치에 대한 생각과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 분야의 칠레 연구가인 리라와 웨인스타인은 고문으로 고통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색을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일에 대한 능력과 생활관계에서 특히 대인관계에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의 저하현상이 나타난다."

이 저자의 연구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게다가 고문후유증으로 나타나는 "외상후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가 오고 대부분의 경우에 인성이 많이 바뀐다.

내가 조사했던 환자와 다른 환자들의 인성과 행동들의 전반적인 변화는 벤질라프와 바이어가 주장했던 나치체제의 많은 피해자들이 겪은 인성의 반동적 변화와 비슷하다고 했다. 고문환자들은 며칠, 몇주, 몇달 동안 지속해서 피곤한 증세를 보일 뿐만 아니라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집중할 수도 없다.

환자들 중에는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을 보이지 않는 다른 경우가 있다. 특히 정서나 감성부분에서 저하와 함께 전반적인 기능저하현상과 인성의 변화가 나타난다. 고문이 정신병적인 발달이나 기관기의 장애와 같은 현상을 초래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북아메리카의 정신병학자들이 말하는 고도의 긴장상태, 또는 독일 정신병학자들이 말하는 한계상황과 비교하여 고문의 실상에 대한 근본적인 특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고문의 실상

- 절대적 불균형

바이어와 부거에 의하면 대인관계의 기본적인 특성 의 하나는 어떤 대칭성(조화)이다. 진정한 만남은 동등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 바꾸어 말하면 고문 상황을 특징짓는 첫 번째 특징은 고문가해자와 피해자 이의 불균형 관계이다. 피해자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고문 피해자는 거의 혹은 전적으로 어떤 방어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고문 피해자는 자기자신을 방어할 수 없으며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지식을 이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강화시킬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피해자들은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눈이 가려져 있어 그 참혹한 상황과 자신 앞의 가해자조차도 알 수 없다. 가해자의 힘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해서 결국에는 어떤 신념의 자발적인 변화나 의지가 꺾이는 것을 원한다

고문의 형태는 신체에 물리적인 가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위해도 가해진다. "의지를 나약하게 하는 기술들은 수감자들의 방을 비롯해서 저항하고자 하는 의지가 되살아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목적으로 수감자를 계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정체불명

고문의 두번째 특징은 정체불명한 것이다. 가해자나 피해자나 고문의 순간까지 서로를 모른다는 것이다. 고문의 희생자는 남자를 불문하고 고문한 자의 이름을 모르며, 고문자들은 종종 피해자의 참 인간성에 관하여 고문자의 상사에 의해 왜곡된다. 그들은 모두 다른사람들에 대하여 집합적인 실재로서 대표한다. 고문자는 특별한 종자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나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고문을 가하는 자들의 지도와 훈련 때문에 반드시 해체되어야 할 적대자 집단으로부터 특징지워지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들이 전체주의 국가의 상징이라며 그들을 혼란시키며 죽음의 그늘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한다. 가해자에게 이러한 인간적인 요소의 상실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전임자의 과도한 폭력에 대하여 설명하고 후임자에 의해서 방어력을 완전히 상실하도록 해를 끼칠 수 있음에 대하여 설명한다. 공격적 행위에 대한정신병리학적 연구 결과 전시 선전포고의 문학은 인간의 공격적인 행위를 자극하고 허락하는 요인이며 다른 사람에게는 인격파탄의 행위이다. 피해자측에서의 접근은 동물과 인간에 내재하는 공격성에 대조적이다.

고문가해자는 부분적으로 격세유전의 법칙으로 과도한 슬픔을 지닌다. 왜냐하면 그의 폭력성은 약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희생자들의 친밀한 친구가 될 수도 있다.

이중의 구속

고문의 상황을 특징짓는 세번째 요소는 이중으로 구속되어 붙잡혀 있는 상태이다. 극한적인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던지 정치적인 동료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믿음과 대의를 고발하든지의 끔찍한 양자택일이다. 첫번째의 경우는 극심한 고문에 못이겨 더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탈출하는 유일한 방편으로서 자백하거나 동료를 비난하면서 그 자신 또는 그녀 자신의 육체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지만 정신적인 불일치로 말미암아 심각한 위험이 나타난다. 고문희생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자신과 자기 주체성을 파괴하게 되고 그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주는 집단적인 감금상태를 격멸하게 되는 것이다. 고문을 당한다는 가해자들의 집단을 간접적으로 변형시켜 비난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문피해자의 전반적인 사회정치적인 환경은 이중으로 구속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체주의에서는 적대자들에게 광범위한 댓을 씌우고 탈출을 불가하게 한 후에 싸우는 것이다. 이러한 괴로움을 대처하는 일은 일상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 완전히 댓에 걸리고 이중의 구속이 되어 이러한 재앙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가치와 동료와 삶의 계획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체포되고 지나친 고문을 당하여 방어력이 상실될 경우에 이중의 속박이라는 성격로부터 야기되는 일련의 잔인한 선택을 강요당하는 것에대한 정치적인 신념 때문에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이다. 피해자는 자기자신의 삶과 동료의 삶을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육체가 온존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가치와 믿음을 선택하든지, 자신과 가족이 온존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조직을 선택하든지 동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가장 절대적인 확신이 결핍된 세계관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기만, 허위

고문행위는 기만과 거짓으로 가득차 있다. 그 척도는 진실의 반대이며 그리스어로 aletheia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식적인 것을 발견하도록 하며 그 의미와 주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체포와 감금을 지휘하는 담당자는 가끔 바보가 되며, 이때문에 희생자들은 고문실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고문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본질을 숨기고 고문의 속성을 속여서 다른 양태로 가장하기도 한다. 피해자들은 밝거나 어둡거나 인공조명이 있는 곳에 지낸다. 자연광은 aletheia처럼 믿음의 관념과 가까이 연관되어 있기에 이런곳에서는 금지한다. 일반적으로 어느정도의 위험은 허위이다. 옆방에서 겁탈하는 비명을 지르는 것은 아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거나 유사한 목소리이다. 고문에 굴복한 조사대상자는 그의 가까운 동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거나 그의 자녀들이 유괴의 대상이 된다. 풀려난 다른 대다수의 구금자들에게 의해 무시무시한 처형 예행연습이 열거되는 것은 기만에 대한 극한적인 대응이며 인간의 심리적 기저에 강한 인상을 심는다. 방향감각을 완전히 상실하는 것은

일종의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의식이 대립되는 상태가 계속된 결과 진실, 기민함, 무방심, 명료한 자신에 대한 감각을 찾기가 희미해지게 된다. 그러한 결과 종종 고문을 당한자들은 자기 자신이 테러리스트 혹은 그와 유사한 행위의 비난받을 짓을 확실히 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읽는 것이 허락 되지도 않은 채 공문서에 서명한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할 것 같다. 정부가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정당한 것 같더라는 등등에 동의하는 것이다.

공간성

고문은 공간과 특별한 목적과 상황이 깊숙히 결합되어 있다. 이미 고문으로 이르는 길이 어떻게 날조되었고 숨겨졌는지, 개인의 사물이 없다 하더라도 방안이 얼마나 작은지, 어둡거나 계속 켜져있는 희미한 불빛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침대는 원래 휴식을 취하거나 사랑을 나누는 곳이나, 고문을 위한 전선을 감기 위하여 전용되었다. 물은 갈증을 해소하고 씻기 위한 것이나 머리를 물 속에 처박고 눌러 질식시키는 몹시 혐오스런 고통을 주기 위한 상태를 만들기 위한 재료로 전용된다. 방은 아무리 가난하고 인강성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적어도 잠은 청할 수 있으나 소음과 전등으로 눈부시게 하고 밤낮없이 계속 갇힌 사람을 서있게 만드는 또 하나의 고통을 주는 수단이 되었다.

나아가 자신의 육체가 고문의 과정에서 저주스럽고(왜냐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아프고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이방인(때때로 고통을 이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의 육체가 아니라고 알아차릴 때이다)이거나 또는 몰아내버린다(성고문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의 육체는 연민의 정과 온화함이 있으나 육체미의 감탄과 성적인 매력이 고문의 상황에서는 마음을 바꾸는 도구도 악용되고 고통에 의해서 인간성이 상실된다. 드물지 않게는 인간의 오랜 파수꾼이자 친구인 개를 협박을 위한 도구로 인간에 대하여 성행위를 하도록 비비고는 기능을 하도록 훈련된다.

다른 항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랑의 특징은 Bollnow의 주장에서처럼 생명의 공간에 대한 원칙을 극복함으로써 그 특징이 있고, 연인들이 평등하게 서로를 채워주도록 하는 무한한 세계가 존재하는 것에 동의하며, 고문가해자의 공격적인 행위인 추방하는 것과 함정에 빠뜨리는 것과 가두는 것과 파괴시키는 것에 비유되어 대조적이다. 고문은 극한적인 적대행위가 특징이다. 왜냐하면 강제추방하거나 감금하거나 타인에 의하여 육체를 직접 가할 뿐만 아니라 고문기구를 통하여 성적인 기행위를 하는 것이다. 고문가해자와 피해자는 사랑에 대한 교감은 비교할 만하지만 사랑이 찬양될 때는 적대시하고, 고문이 감소하면 사랑이 줄어들고,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최대의 경멸로서 고문이 상징될 때 사랑은 삶이며, 어느 정도의 내면의 삶이며 고문은 끊임없는 죽음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일시성

시간은 또한 고문을 크게 변화시킨다. 삶의 리듬이 종종 뒤바뀌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해 리듬과 마침표 전환과 무대, 계절마다 주기를 짜내고 고문의 시대는 예견가능성이 없게 배역을 맡기고 끊임없이 들고 돈다. 이러한 무한의 감정은 세속적인 사랑의 전형적인 속성과 거의 관련이 없다. 고문은 고문가해자의 프로그램 일정에 짜맞추어 고문피해자에게 혼동과 어리둥절하게 하는 별난 시대에 나오는 것으로 실행된다. 고문 피해자는 그 과정이 언제 시작되고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 대다수의 끈기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고문은 당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그 끝을 알 수 없는 기분이다. 그것은 아마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사이에 상호작용하여 서로 존재하는 것이 보통인데 고문은 이와는 별 관계가 없어 완전히 감소되어 현재는 이와 반대이다. 고문을 위한 회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위해를 당하여 죽음에 이르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듯하다. 모욕으로, 자격박탈로, 보상기회의 상실로, 믿 음과 개념과 가치와 가족에 대한 잔인한 비방으로 조금씩 약화되어 과거가 파괴되었다.

이러한 여섯가지의 영역에서 최근의 또는 아래에서 처럼 만성적인 정신질환의 상태에로의 발전에 대하여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외형을 묘사하자면 기본적인 육체가 쇠약해진 형태이며, 그것은 대체로 인간의 긴지한 교감이 아닐 경우에 대체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고문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가 익명이고 불균등한 관계이라는 것은 Heidegger's Miteinandersein and Martin Buber's I-You relationship에서 인간의 내면적인 만남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인간의 내면적인 구조와, 개성의 특성과, 서로간의 특질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한다. Bateson's의 이중의 감옥이 정신분열증으로 발전된 경우는 드물게 나타나지만 임상적으로 조직화되고 정신질환에서 정신병리학적인 발육 원리와 가족요법이 중요하게 자리잡는다. 인격과 많은 지식을 포함한 정체성은 계속되는 고문으로 강압적인 이중의 감옥적인 요소가 고문자와 피해자간의 의사전달의 특질적인 요소가 되어 자아와 정체성이 손상되고 만성화되어 관찰된다. 고문피해자들의 경향의 복귀에 대한 증거가 이점을 입증한다.

고문의 상황이 기만으로 가득차 있는 것은 특히 생존해 있는 고문피해자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밀접한 관계있는 것 같다. 믿음과 진실은 어원이 연관되어있고 aletheia처럼, 마틴 하이데거의 순수처럼 믿음은 진실의 틀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결국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고문은 일시성과 공간성의 중요한 측면에서 또한 파괴와 왜곡으로부터 기인한다. 둘은 서로간에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것이 확실하다. 전자는 행위동기를 더욱 손상시키는데 기여하고 후자는 고문피해자들이 가정과 건강과 사회에 대한 자기 자신들의 세계에 대한 감각이 심각하게 파괴되었다고 말해오고 있는 어윈 스타우스의 주장처럼 삶의 공간을 파괴시킨다. 고문피해자들은 어쩌면 정신적인 미아가 되어버렸다.

소 장

원 고 문 국 진

위 소송대리인
변 호 사 이돈명, 백승헌,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피 고 대 한 민 국

소송물가액 : 200,000,000원
첨부인지역 : 1,000,000원
송 달 료 : 26,400원

서울민사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문 국 진

서울 [redacte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돈명, 백승헌, 이석태, 김형태, 조용환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6의 3(창림빌딩 2층)

피 고 대한민국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 두 회

손해배상 청구의 소 (기)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건 소장 송달일부 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불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원고는 1986.3.25. 당시 치안본부에서 수사한 속칭 '보임 다산 사건'의 관련자로 지목받고, 그 무렵 수배 조치되어 도피생활을 하던 중 1986. 10. 청량리 경찰서에 자수하였습니다.